

5·18웹툰 사례조사 보고서

5·18웹툰 사례조사 보고서

5·18기념재단의 만화 <망월> 및
웹툰 <열두 살 삼촌>에 관한 보고서

5·18기념재단

목 차

5·18웹툰 사례조사 보고서

I. 서론

- 1. 연구배경과 목적 1
- 2. 연구내용과 방법 2

II. 5·18기념재단과 웹툰의 의미

- 1. 5·18기념재단과 일베 현상 3
- 2. 5·18민주화 운동을 웹툰으로 연재할 필요가 있는가? 4
- 3. 독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7
- 4.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연재할 것인가? 8
- 5. 웹툰을 어느 플랫폼에서 연재할 것인가? 8
- 6. 독자가 웹툰을 보고 어떤 의미작용을 하기 바라는가? 10

III. 5·18기념재단과 웹툰의 사례조사

- 1. 강풀의 <26년> 12
- 2. 이무기의 <곱게 자란 자식> 19
- 3. 주호민의 <신과함께> 26

4. 시니/허노의 <죽음에 관하여>	30
---------------------------	----

IV. 5·18기념재단과 웹툰의 전략적 접근방법

1. 웹툰의 접근방법1 : 오월문화상	35
2. 웹툰의 접근방법2 : 오월의 문화초대석	39
3. 웹툰의 접근방법3 : 스토리텔링의 다변화	40
4. 웹툰의 접근방법4 : 작가의 전략적 콘텐츠 창작 지원 정책	41
참고문헌	43

5·18기념재단의 만화 <망월> 및 웹툰 <열두 살 삼촌>에 관한 보고서

1. 만화 <망월>	45
2. 웹툰 <열두 살 삼촌>	51

5·18웹툰 사례조사 보고서

박경철(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일반대학원 문화학과 교수)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본 연구의 보고서는 한류라는 물결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이 결코 부정적이지 않으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리라는 미래 긍정적인 가치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류의 경우, 어느 누구도 한국의 대중문화를 아시아를 넘어 서양인이 즐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 우리는 미국 문화에 젖어 있었으며, 라디오에서 팝송을 듣는 것이 당연하였다. 명절이면 홍콩영화에 열광했고 어린이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애니메이션에 빠

저들었다. 그런 타문화 지향의 세대에서 한류라는 기점에 의해 한류의 물결이 단지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넘어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류는 한국 문화의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시대적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류의 시초는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랑이 뭐길래>(1991년~1992년)의 1997년 중국(CCTV) 방영으로 보지만, 본격적인 한류의 시작은 2002년 방영한 <겨울연가>(일본, 2003년)와 2003년~2004년 방영한 <대장금>에서 찾는다. 이들은 드라마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드라마 콘텐츠가 한류를 만드는 시기에 중요한 콘텐츠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2002년 엽기코드와 맞물려 인터넷에서는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킨 엽기토끼로 알려진 <마시마로의 숲>이라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등장하였으며, 2003년에 방영을 시작하여 127개국에 수출된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TV 애니메이션이 등장하였다.

군사정부의 마지막 해인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면서 젊은 세대의 폭발적인 열광과 함께 한국 대중음악이 더욱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반 이후의 성공적인 콘텐츠 등장에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정책·정보화·IT 산업을 육성한 김대중 정부(1998년~2003년)의 기반 구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스필버그가 만든 <쥐라기 공원> 한 편이 자동차 수만 대를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이것이 문화 산업의 위력입니다.”라는 말에 문화 산업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처럼 한류의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었던 저변에는 젊은 세대가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고 열광할 수 있는 문화·사회적인 기반이 갖추어졌기에 가능했다.

미래 긍정적 가치의 경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2003년~2008년)를 거치면서 대중은 과거 정부의 제한되거나 통제되는 문화에서 자유로운 문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였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보여준 붉은 악마로 표현된 젊은 세대의 열광적인 응집력과 자신감, 2008년의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결집력은 대표적인 젊은 세대의 힘과 긍정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예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와 박근혜 정부(2013년~)에 와서 ‘자기검열’이라는 말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이민 가겠다.’는 말이 자조적으로 쏟아지고 있으며, 미래가 암울하여 주저 않을 것만 같아 보이는 비관적인 한숨이 들린다.

그럼 “한국의 미래는 부정적인가? 젊은 세대의 미래는 불행할 것인가?”에 대해 본 연구자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이다. ‘서태지’, ‘붉은 악마’, ‘촛불집회’의 상징적 의미는 한

국민의 에너지이다. 이 에너지가 위축되면 될수록 응집되어 축적될 것이며, 축적된 응집의 에너지는 미래 긍정적인 가치의 내재된 모습이다.

미래 긍정적 가치가 있기에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콘텐츠에 관심을 두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장르에는 게임, 드라마, 만화, 소설,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입시 교육으로 인하여 제도권 교육에서 놓치기 쉬운 삶과 죽음, 역사의식 등의 교육적인 효과가 높은 콘텐츠가 있다. 그 콘텐츠 장르는 만화의 한 장르인 웹툰이다. 1980년 5·18민주화 운동을 강경 진압케 한 전두환이 제대로 처벌되지 못한 시점에서 개인이 모여 단죄를 하고자 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강풀의 <26년>, 직장인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보여준 윤태호의 <미생>, 저승을 소재로 하여 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게 한 주호민의 <신과 함께>, 죽음을 소재로 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니/허노의 <죽음에 관하여>, 일제 강점기에 민중이 처한 아픔을 다루고 있는 이무기의 <곱게 자란 자식>과 같은 웹툰은 독자에게 재미를 넘어 생각할 여지를 주고 있다.

5·18기념재단이 가진 위치와 역할은 현 정부와 같은 시국에서 특히 상징적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비록 하나의 작품일지라도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으며,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웹툰의 가치가 있다. 본 보고서는 젊은 세대가 즐겨이 보는 웹툰을 5·18기념재단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근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웹툰의 의미와 사례조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과 방법

5·18웹툰 연재를 위한 사례조사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5·18기념재단의 만화 <망월> 및 웹툰 <열두 살 삼촌>에 관한 보고서’이다. 5·18기념재단에서 발행한 만화와 웹툰에 관한 분석을 별도의 보고서로 첨부하였다. 형식적인 기초 분석이 아닌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별도의 보고서 형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만화 <망월>과 웹툰 <열두 살 삼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림체와 스토리텔링, 연출 등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5·18기념재단과 웹툰의 의미’이다. 5·18기념재단의 사업에 있어서 웹툰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1. 5·18기념재단과 일베 현상’, ‘2. 5·18민주화 운동을 웹툰으로 연재할 필요가 있는가?’, ‘3. 독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4. 어떤 스토리

텔링으로 연재할 것인가?’, ‘5. 웹툰을 어느 플랫폼에서 연재할 것인가?’, ‘6. 독자가 웹툰을 보고 어떤 의미작용을 하기 바라는가?’의 과정으로 기술하였다.

세 번째, ‘5·18기념재단과 웹툰의 사례조사’이다. 다음과 네이버에서 연재하였거나 연재 중인 웹툰의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다음에서 연재되었거나 연재 중인 웹툰으로 강풀의 <26년>, 이무기의 <곱게 자란 자식>, 네이버에서 연재되었던 웹툰으로 주호민의 <신과함께>, 시니/허노의 <죽음에 관하여>를 사례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네 번째, ‘5·18기념재단과 웹툰의 전략적 접근방법’이다. 문제제기를 통한 대안 제시를 하였다. 5·18기념재단에서 웹툰을 연재하기 위하여 지원한다는 범위를 넘어, 웹툰이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여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방법까지의 대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5·18기념재단과 웹툰의 의미

1. 5·18기념재단과 일베 현상

음악의 <서태지와 아이들>, 드라마의 <겨울연가>, 애니메이션의 <뽀롱뽀롱 뽀로로>, 유튜브의 <강남스타일> 등은 한국 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아이콘이자 콘텐츠이다. 특정한 분야가 아닌 문화 전반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창작되어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어린 세대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아닌 뽀로로를 보고 젊은 세대는 팝송보다 KPOP이라 불리는 우리 음악을 듣는다. 나아가 아시아인·유럽인·미국인 등의 다양한 국가와 인종이 인터넷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있다.

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한류라는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류와 인터넷이 상징하는 바는 한국에서 창작된 문화 콘텐츠가 한국 안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크나큰 네트워크에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또는 “어떤 의미작용을 하기 바라는가?”의 목적에 따라 국내외의 인터넷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세상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류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역동적으로 세계 속으로 퍼지는 문화 현상이다. 역동적인 문화 현상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표출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로 상징되는 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일베가 만들어내는 콘텐츠

는 지역차별과 여성차별,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성적 요소 등의 비뚤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키백과에서 검색한 <일베저장소> 목차에서 ‘3 정치 성향’ 항목을 보면, 일베에 대해 정치평론가 김민하는 한겨레 21에서 ‘민주평화개혁세력에 대한 혐오, 지역감정, 여성 혐오’가 있다고 부정적으로 본 반면, 뉴데일리와 일부 주요 언론은 ‘애국적 시각이 강한 곳’,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애국성향의 커뮤니티’로써 긍정적으로 보는 혼란스런 시대의 상징적 지표이다. ‘5 비판’ 항목의 소제목을 보면, ‘사이버 여론조작/민주화 단어 사용/특정지역 비하/부정적인 단어 사용/5·18민주화 운동 부정/여성 혐오/노무현 비방 합성물 사용’이 있다. ‘6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 항목의 일부 소제목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 표창 찢기 논란/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해킹 사건/초등학생 성적 비하 발언’의 논란이 된 사건이 있다. 특히 눈여겨보아야할 부분은 ‘특정지역 비하’, ‘5·18민주화 운동 부정’처럼 광주·전남과 밀접한 사안을 ‘사이버 여론조작’한다는 점이다.

자극적인 것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은 인터넷에서의 여론조작에 선동되기 쉬운 시기이다. 가치관과 역사관이 분명히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있어 보이는 현상’ 또는 ‘기존 질서에 반항하듯 보이는 현상’에 동참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기 쉽다. 일베가 만들어 내는 문화를 남의 일처럼 모른 척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웹툰이 가진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웹툰은 인터넷에서 청소년 및 젊은 세대가 즐기는 콘텐츠이다. 5·18기념재단의 웹툰으로 주제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5·18민주화 운동을 웹툰으로 연재할 필요가 있는가?”, 두 번째, “독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세 번째,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연재할 것인가?”, 네 번째, “웹툰을 어느 플랫폼에서 연재할 것인가?”, 다섯 번째, “독자가 웹툰을 보고 어떤 의미작용을 하기 바라는가?”이다.

2. 5·18 민주화 운동을 웹툰으로 연재할 필요가 있는가?

2015년 11월 27일에 다음(DAUM)에서 검색어 ‘일베 518’로 검색한 내용 일부를 보면, <[일베] 518 논란때 자주 써먹자>는 제목이 있다. 글 내용에 ‘5.18 파는 사람 있다 / 보상금 노리고 서류-증언 짜맞추기(출처. 한겨레, 1999.03.18)’와 ‘허위 진단서로 5.18 보상금(출처. 경향신문, 2000.05.11.)’처럼 부정을 저지르는 일부의 기사를 활용하여 전체를 매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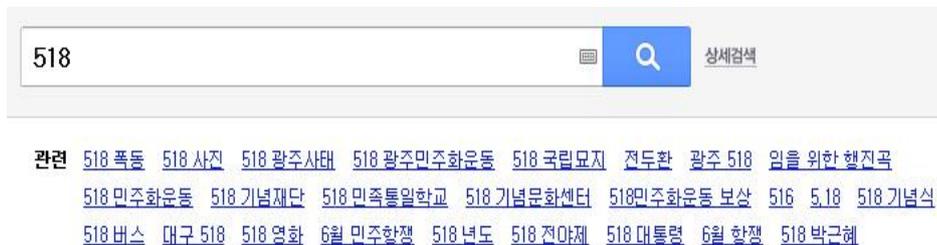
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그림 1>은 다음에서 검색어 ‘518’을 입력하면 나타나는 화면의 일부이다. 바로 밑의 ‘관련’ 항목에서 ‘518 폭동’이 가장 앞에 있는 용어이다. 폭동으로 인식하고 검색하는 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518 폭동’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이다. ‘동영상’ 항목의 제목을 보면, <518은 폭동이다>, <북한군 개입 5.18 폭동 증언>, <광주518무장반란진압 계엄군의 날>의 동영상이 있다. 동영상 ‘518은 폭동이다’는 3,486명이 본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처럼 잘못된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트리고자 하는 이들이 인터넷에서는 흔히 보인다.

일베와 대척점에 있는 사이트는 오유(오늘의 유머)이다. 2015년 11월 27일자 오유의



‘베스트오브베스트’ 게시판에 올라온 한 제목은 <이번에 일베 5.18, 지역비하 대놓고 저격한 아이돌.jpg>이다. 전라도와 5.18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이들을 향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공개한 곡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글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친구들 많아서 혹시나 518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 있을까봐 링크도 띄웁니다. 교육과정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아서 요즘 어린애들 대부분이 모르는 5.18 사건/일베서는 폭동이라고 계속 조작해서 요즘 어린애들은 폭동인지 아는 애들도 많음...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인기 많은 팀인데 일베때매 518이 폭동인 줄 아는 중고등들도 엄청 많은 와중에 그래도 이런 팀 덕에 희망적이네요. 흥하고 파워 커져서 앞으로 더욱 정부 눈치 보지 말고 사회 부조리에 관련된 노래도 많이 해주고 영향력 많이 끼쳐줬으면

위 글에서 다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교육에서 5·18민주화 운동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일베는 5·18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조작한다. 세 번째, 일부 어린이와 중·고등학생은 일베의 조작으로 인해 폭동으로 인식한다. 네 번째, 대다수가 정부의 눈치를 본다. 다섯 번째, 콘텐츠는 청소년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

<표 1>은 위 글에 대한 댓글 일부로써 글의 거칠음과 공격성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볼 내용이 있다. 닉네임 지수***는 ‘역사 왜곡하는 일베’, ‘대중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예술가들이 이렇게 의식 있는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는 것도 장려할 일’이라는 의견이다. 닉네임 김명**는 ‘5·18민주화 운동과 5·16군사 쿠데타를 구분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단순히 재밌어서 일베하는 애들 많아요.’라는 의견이다.

댓글에서 다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일베는 역사를 왜곡한다. 두 번째, 대중적인 작가가 의식 있는 콘텐츠를 창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5·18민주화 운동과 5·16군사 쿠데타를 구분 못하는 청소년이 있다. 네 번째, 많은 청소년이 단순히 재미로 일베를 한다.

닉네임	댓글 내용
지수***	역사 왜곡하는 일베놈들에게 유쾌하게 한 방 먹였네요. 영리하지만, 아이들로서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ㅎㅎ
bal***	일베 한방 먹인 것도 좋은데 또 일베한테 총공당하고 피해입고 움츠려들까봐 그게 걱정이네요. 사실 한방 먹인 거보다는 청소년들한테 영향력 있는 팀이 518같은 거 언급해줘서 몰랐던 항상 찾아보게 하는 아이돌 순기능 하는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호감 됐어요.ㅎㅎ

지수***	<p>확실히, 대중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예술가들이 이렇게 의식 있는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는 것도 장려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예계나 대중문화 전반에 '상식'이란 걸 튼튼하게 깔아 줘야만 일베가수 같은 애들이 더 이상 발을 못붙이거나 찌그러져있게 되겠죠. 그 문화를 소비하는 대중들에게도 마찬가지로요.</p>
김명**	<p>그리고 많은 교육다큐를 봐도 아이들이 역사에 많이 무지하다 는걸 알 수 있죠 3.1절은 3점 1절이라고 읽기도 하고 5.18 민주화 운동과 5.16군사 쿠데타를 구분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윤보선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은 아예 모르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보면 단순히 재밌어서 일베하는 애들 많아요.</p>

이 단계에서 “왜! 독자와 의미작용하고 싶은가?”에 근본적인 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5·18민주화 운동과 5·16군사 쿠데타를 구분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단순히 재밌어서 일베하는 애들 많아요.”처럼 반항적인 시기의 청소년 시기에는 잘못된 것에 매력을 느끼고 수용하기 쉬워진다. 웹툰을 통해 독자와 의미작용을 해야 하는 이유는 타인 또는 매체의 영향을 받기 쉬운 젊은 세대에게 옳고 그름의 실체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대중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예술가들이 이렇게 의식 있는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는 것도 장려할 일이라고 봅니다.”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이를 웹툰으로 변경하면, “대중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웹툰 작가가 이렇게 의식 있는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다.”가 된다. 5·18기념재단이 웹툰을 연재해야 하는 이유는 재미를 기반으로 하는 의식 있는 콘텐츠를 통해 독자와 의미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5·18기념재단은 ‘대중의 생각은 다양하다’는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대변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거리를 두고 관조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5·18기념재단이 대중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웹툰 작가를 지원하여 의식 있는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다.

웹툰은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소재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스토리텔링에 의해 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한 매체이다. “5·18민주화 운동을 웹툰으로 연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이다. 청소년이 즐기는 대표적인 콘텐츠가 웹툰이다. 웹툰이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5·18민주화 운동을 대중적으로 알림에 있어서

거부감 없이 즐기는 콘텐츠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3. 독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2015년 6월의 <웹툰 산업 현황 및 실태조사>를 보면, '제 5장 웹툰의 이용 실태'에서 15세 이상부터 49세 미만의 웹툰 이용자 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이 54%로 남성의 46%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온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34.5%, 20대 27.8%, 40대 22.1%, 10대 15.6%이다. 30대가 가장 높으며 20대와 40대가 10대보다 높은 비율이다. 응답자의 직업분포를 보면, 회사원 47.7%, 대학·대학원생 19.7%, 전문직 종사자 9.1%, 중·고등학생 6.9%, 전업주부 5%의 순이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지역 33%, 인천/경기/강원지역 34.1%, 부산/경남/울산 13.7%, 대전/충청 9.1%, 광주/전라/제주 5.4%, 대구/경북 4.8%이다. 응답한 대상의 특징을 보면, 30대와 20대면서 회사원과 대학·대학원생, 서울과 인천/경기/강원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독자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전체 연령의 독자, 10대의 독자, 20대부터 40대의 독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60대 이상의 독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는 컴퓨터에 친숙하지 못하거나 만화를 부정적으로 볼 세대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거나 정치적으로 생각의 전환을 갖기 어려운 나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독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웹툰의 독자는 광주·전남이 대상인가?”, 두 번째, “웹툰의 독자를 어느 지역으로 정할 것인가?”

1) 웹툰의 독자는 광주·전남이 대상인가?

광주에서 집회를 하면 통상 금남로의 도로를 차단하고 집회 장소로 사용한다.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나 버스기사의 항의는 없다.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시민 또한 이를 수용한다. 경찰은 채증하거나 막지 않는다. 단지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모습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다. 정부는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를 공권력으로 저지하고 법을 들먹이며 겁을 준다. 여기서 광주와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차이가 드러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광주와 그렇지 못한 서울의 차이는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에 대해 광주의 시민과 광주시, 경찰이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가 보장되는 곳에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기에 광주·전남을 대상으로 5·18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하는 웹툰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2) 웹툰의 독자를 어느 지역으로 정할 것인가?

독자를 특정한 지역으로 정한다는 질문 자체가 어리석어 보인다. 이 질문은 다르게 해석하면 독자를 광주·전남으로 국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함을 의미하며,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타 지역의 독자를 대상으로 해야 함을 말한다.

4.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연재할 것인가?

스토리라는 말 대신에 스토리텔링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이다. 스토리라는 ‘이야기’에 ‘하기’라는 구체적인 지시어가 붙어 있다. 이는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로 풀어볼 수 있다. ‘어떤 이야기’는 5·18민주화 운동이다. ‘어떻게’는 어떤 주인공이 필요하며, 주변 인물을 누구로 할 것인지와 어떤 사건의 연속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5·18민주화 운동이 주된 소재인 지 아닌 지도 고민해야할 부분이며, 앞에서 문제제기한 독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육하원칙인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대한 기획의 단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의 구성 요소는 인물·배경·사건이다. ‘누가’는 주인공과 주변 인물이며, ‘언제·어디서’는 배경, ‘무엇을·어떻게·왜’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물은 성격,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사건은 사건의 전개를 고려해야 한다.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연재할 것인가?”의 답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독자와 의미작용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 필요하다. 5·18기념재단의 역할이 바로 이 답을 제시하여 작가와 충분히 소통해야하는 부분이다. 반면, 스토리텔링과 그림체, 연출이 작가의 역량이자 몫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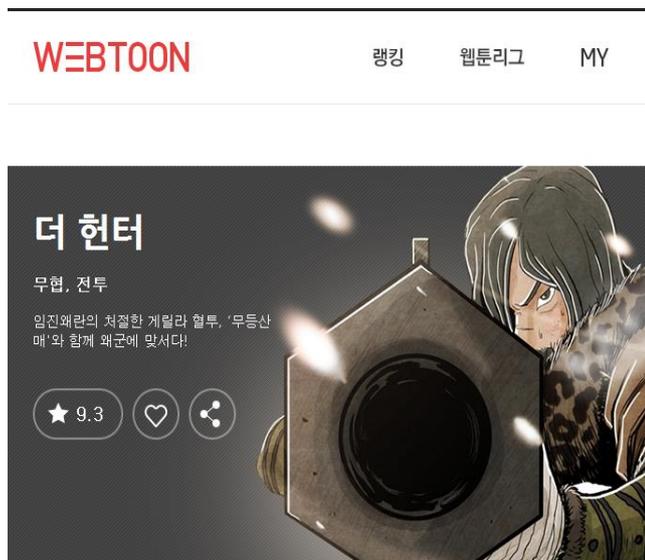
5. 웹툰을 어느 플랫폼에서 연재할 것인가?

<웹툰 산업 현황 및 실태조사>에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포털 3개, 웹툰 전문 플랫폼 11개, 신문사 플랫폼 7개, 통신사 플랫폼 2개, 해외 플랫폼 2개, 모바일/SNS전용 플랫

품 3개의 총 28개 플랫폼과 원고료를 지급받는 연재작품이 총 4,661 작품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포털은 네이버와 네이트, 다음카카오의 3사이다. 포털은 웹툰을 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연재가 끝난 후에는 일부 유료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웹툰의 이용률이 높은 플랫폼은 네이버·다음카카오·네이트의 순이며, 10대와 20대는 네이버를, 30대와 40대는 다음카카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웹툰 전문 플랫폼은 유료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보기와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료이며,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내용을 띄기 쉽다.

5·18기념재단의 웹툰은 웹툰 이용률이 가장 높으면서 10대와 20대 독자가 높은 네이버와 웹툰 이용률이 두 번째로 높으면서 30대와 40대 독자가 높은 다음카카오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플랫폼이다.

앞에서 독자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었다. 전체 연령의 독자, 10대의 독자, 20대부터 40대 독자까지의 구분이었다. 전체 연령의 독자는 7세부터 13세까지의 초등학생의 독자를 포함한다. 전체 연령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초등학생의 독자를 주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10대의 독자는 초등학생을 제외한 14세부터 19세까지 중·고등학생의 독



자를 대상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20대부터 40대는 성인이자 젊은 세대이면서 사회의 주축이 되는 세대라는 점에서 범위를 넓게 둔 경우이다. 이러한 구분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 연령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10대의 독자가 대상일 경우에는 네이버가 추천할만한 포털이다. 20대부터 40대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카카오가 추천할만한 포털이 된다. 두 포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재 중인 웹툰이 무료이다. 두 번째, 가장 많은 독자가 웹툰을 보는 플랫폼이다. 세 번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인터넷에서 영향력이 크다.

<그림 3>은 다음카카오에서 연재 중인 웹툰 <더 헌터>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2014년 10월 28일 예고편 이후 1화를 11월 4일에 올리기를 시작하여 현재



제 48화가 2015년 12월 1일자로 올라와 있다.

<그림 4>의 ①은 <더 헌터>의 한 장면이다. 이 장면의 배경은 무등산 서석대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타 지역 소재의 작가에게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광주라는 소재의 조건을 내걸었다. ②는 매화의 웹툰 하단에 표기된 지원기관명이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매주 일회 독자에게 노출되는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방식의 장점은 첫 번째, 홍보 효과이다. <더 헌터>의 경우, 배경이 광주의 무등산이기에 독자에게 무등산이 친근하게 다가간다. 두 번째, 작품의 완성도이다. 네이버나 다음카카오에 정식 연재되는 작품이기에 질적 수준이 검증된다. 세 번째, 작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기관은 최소한의 조건만을 걸고 선정된 후 작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 이후 연재하는 과정에서의 원고료는 작가에게 간다. 이 방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작가에게 창작의 기회와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6. 독자가 웹툰을 보고 어떤 의미작용을 하기 바라는가?

드라마나 영화, 소설이 독자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형태의 매체라면, 웹툰은 댓글이라는 형태를 통해 독자의 생각을 밝히고 작가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작가와 독자, 독자와 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매체라고 하겠다. 다음은 위드인뉴스의 하태훈이 <더 헌터>의 글 작가인 강두영과 나눈 인터뷰 일부이다.

Q. 웹툰 작가로서 댓글에 대한 고민도 있을 텐데. 창작자로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나.

강두영 : 얼마 전 작가들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라이트한 작품을 하는 분들은 댓글에 민감해 해야 한다. 바로 바로 오는 반응이니까. 그런데 저는 스토리 있는 작품을 하는 작가들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산으로

BEST 찌 (h_c****) 2015-08-29 15:46

좋아요: 5189 | 싫어요: 453 | 신고

작가님이 읽으실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라도 남겨놓고 싶어서 몇 자 적어보고 있습니다. 웹툰을 별로 즐겨보지 않던 제가 심연의하늘이라는 웹툰을 접하고 조금씩 조금씩 웹툰을 접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내용이라 보는 것도 혼란스럽고 힘든데, 작가님은 얼마나 힘들지 짐작도 가지않아요. 독자인 저로서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멀리 달려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만큼 부탁드립니다. ()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싶은 마음에 댓글 달아요. 이번 편도 너무 잘 보고 갑니다.

가니까.

댓글에 민감해야한다는 말을 하면서 독자의 바로 오는 ‘반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흔들리면 안 된다”고 표현한다. 이는 독자의 댓글이 어떤 식으로든 작가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댓글이란 형태의 글쓰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댓글은 ‘반응’과 ‘흔들림’이다. 독자가 작가에게, 독자가 독자에게 의미작용하는 반응과 흔들림의 소통 공간인 것이다.

<그림 5>는 윤인완의 웹툰 <심연의 하늘>에 달린 독자의 댓글이다. 닉네임이 찌 (h_c****)인 독자는 “작가님이 읽으실지 모르겠지만”으로 글을 시작하면서 “일단 뭐라도 남겨놓고 싶어서 몇 자 적어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작가가 읽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 “웹툰을 별로 즐겨보지 않던 제가”라고 말한 독자는 이 웹툰으로 인해 다른 웹툰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독자인 저로서는 이렇게 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싶은 마음에 댓글 달아요. 이번 편도 너무 잘 보고 갑니다.” 독자가 작가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면서, 웹툰이라는 콘텐츠가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작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네이버 웹툰의 경우, 댓글과 관련하여 의미작용하는 독자의 유형에는 ‘조용히 웹툰만 즐기는 유형’, ‘댓글로 의사 표현을 하는 유형’, ‘“좋아요” 또는 “싫어요”를 통해 좋고 싫음을 표현하는 유형’이 있다. <그림 5>의 댓글에는 ‘좋아요’를 표시한 5,189명이 있는 반면, ‘싫어요’를 표시한 453명이 있다. ‘싫어요’의 453명은 8.73%에 이른다. 상식적인 사고로 댓글 내용을 보면, ‘싫어요’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다고 표현하는 독자가 8.73%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독자의 다양성과 생각의 차이를 상징한다. 인터넷이 갖고 있는 다양성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5·18민주화 운동 소재의 웹툰을 본 독자의 의미작용 유형에는 다음의 세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아픈 역사가 있는 줄 몰랐다’는 자기반성의 유형이다. 5·18민주화 운동을 이해하고 감정이입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 ‘과장되었다’ 또는 ‘거짓이다’는 진실 부정의 유형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정 또는 매도하는 유형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야기로 보아야한다’는 기계적 중립의 유형이다. 이야기는 이야기 그 자체로만 즐겨야한다는 유형이다.

5·18민주화 운동이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픽션 또는 논픽션의 스토리텔링이지만 독자가 ‘아픈 역사가 있는 줄 몰랐다’는 자기반성 또는 5·18민주화 운동을 이해하고 감정이입의 의미작용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비록 ‘싫어요’라고 말하는 8.73%가 있을지라도 91.27%의 ‘좋아요’라고 말하는 독자와 8.73%의 선동에 현혹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웹툰을 매개체로 독자와 의미작용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소재가 5·18민주화 운동인 웹툰을 본 후의 독자에게 ‘5·18민주화 운동이 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나?’, ‘광주와 광주민이 피해자로서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자세’의 의미작용이 일어나기를 바라마지 않는 것이다.

Ⅲ. 5·18기념재단과 웹툰의 사례조사

1. 강풀의 <26년>

<26년>은 2006년 4월부터 9월까지 다음에서 연재된 웹툰이다. 제목 <26년>은 1980년 5·18민주화 운동 이후 26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뜻한다. 5·18민주화 운동 당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전두환의 암살을 시도하는 내용이다.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다는 내용 때문에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12년 11월 영화로 개봉되어 2,963,652명의 관객수를 기록하였다. <26년>의 작가 강풀은 오마이스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질문 : 최근 강풀은 그의 다른 작품과 달리 웹툰 <26년>을 무료로 풀었다. 포탈 측에 강풀이 직접 요구한 사안이란가.

답변 : 모든 만화를 그릴 때 전 재미 이외의 목적으로 그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26년>은 달랐어요. 이걸 학생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유료화에서 빼달라고 요청을 했죠. 매년 5월이 되면 선생님들에게 메일이 많이 와요. <26년>을 교육 자료로 써도 되냐면서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전 쓰시라고 말씀 드리거든요.

강풀의 인터뷰에서 주목할 부분은 첫 번째, <26년>은 재미 이외의 목적이 있다. 두 번째, <26년>은 무료이다. 세 번째, 5월이면 <26년>을 교육 자료로 요청하는 선생님이 많다. 네 번째, 강풀은 요청에 동의한다. 강풀이 5·18민주화 운동을 알리는데 적극적인 작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인지도 있는 작가가 소재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사례라 하겠다.

질문 : 분명 <26년>은 강풀에게도 큰 숙제였다. <23년>으로 기획했던 만화를 3년 후에 그럴만큼 거대하고 어려운 숙제 말이다. 다행히 그는 작품을 완성했고, 영화 또한 차질 없이 제작 중이다. 2012년 현재 웹툰 <26년> 그리고 영화 <26년>은 우리 사회에게 어떤 의미일까.

답변 : 이 만화로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그때의 광주, 5·18 항쟁을 기억만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취재를 할 때 보니까 학생들이 5·18과 광복절을 헛갈리더군요. 이걸 그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기자 분이나 제가 전달자의 역할을 못한 거죠. 이런 역사는 반복될 수 있고, 불합리에서 또 다른 불합리가 자랄 수 있습니다. 만화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32년 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리기라도 하자는 거였죠.

<26년>에서 현대적인 의미를 찾기보다는 이 만화를 통해 광주 항쟁을 알게 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다보니 사적 복수가 들어가고 폭력이 들어갔죠. 만화니까 또 재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26년>이 나온 겁니다. 제가 만화를 시작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26년>을 그린 거라고 생각해요.

위의 <26년>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다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그때의 광주를 기억하자(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자). 둘째, 5·18민주화 운동과 8·15광복절을 학생들이 혼동한다. 셋째, 기자나 작가와 같은 전달자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 넷째, 무지에 대한 책임은 학생의 책임이 아닌 전달자에 있다. 다섯 번째, 만화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여섯 번째, 5·18민주화 운동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일곱 번째, 만화적 재미를 위해 복수와 폭력이 들어가게 되었다. 여덟 번째, 만화작가로서 가장 보람된 작업이 <26년>을 그린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강풀이 가진 사회적 책임과 작가로서의 마인드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강풀은 5·18민주화 운동을 알리는데 기여한 공이 가장 높은 웹툰 작가이다.

다음(Daum) 영화 <26년>의 줄거리에서는 강풀을 대한민국 최고의 스토리텔러라고 말하고 있다. 연재 당시 온라인 일일 평균 200만 클릭과 매회 댓글 2천여 건 이상이라는 부분은 강풀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나를 상징하면서, 한국사회가 5·18민주화 운동에 얼마나 민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토리텔러 강풀 원작

모든 사람들이 영화화를 손꼽아 기다린 화제의 웹툰

영화로까지 이어지는 뜨거운 반향

영화 <26년>은 강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강풀은 <26년>을 비롯하여 <아파트>, <바보>, <순정만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웃사람> 등 영화화된 작품만 총 6편, 원안을 제공한 <통증>과 시나리오 단계의 <조명가게>까지 합치면 모두 8편이 총무로의 러브콜을 받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스토리텔러다.

원작 웹툰은 2006년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연재될 당시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며 연일 화제를 이끌어낸 작품이다. 연재 당시 온라인 일일 평균 200만 클릭, 매회 댓글 2천여 건 이상, 총 1억 페이지뷰 등 술한 기록들을 남겼다. 5·18 주범을 다시 법정에 세우기 위한 인터넷청원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며, 일선 학교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는 원작 <26년>을 5·18민주화 운동 바로알기 교재로 사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덕분에 일반 성인 관객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이 원작을 접하면서 과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지만 그 동안 몰랐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소감이 줄을 이은 바 있다. 2006년 네티즌 선정 최고의 만화로 선정되었고 2006년 독자만화대상 온라인만화상과 2007년 독자만화대상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1) 작품 소개

제목에서 보듯이 1980년 5·18민주화 운동 이후 26년이 지난 시기에 전두환을 암살하기 위한 시도를 다루고 있다. 위키백과에 소개된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던 지 26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참가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여야 했던 대기업 회장 김갑세는 당시 죽어간 광주시민의 자녀들과 규합하여 전두환을 암살하려고 한다.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까지 들어와서 계획을 펼치는데, 권총으로 사살하는 1차 시도는 권총 분실로 실패하고, 박진배가 이끄는 광주지역 조폭들의 습격(정면돌파)도 경찰 개입으로 실패하며, 결국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김갑세는 전두환 자택 맞은편 집에 들어가 플라스틱 폭탄으로 자폭한다. 마지막으로 인근 주차타워에 있던 저격수로 국가대표 사격선수 출신의 심미진이 전두환을 저격한다. 그러나 저격과 동시에 전두환의 경호원이 주차타워에 올라가 심미진에게 총을 쏜다. 그 두 컷의 총 소리가 조합되면서 주차타워의 정면이 보이는 것으로 만화는 끝이 나게 된다.

<26년>은 김갑세가 암살할 인물을 모집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 암살을 하기 위한 실행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부영화 <황야의 7인>을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약자가 있고 일을 의뢰받은 주인공이 각 분야별로 능력 있는 인물을 한 명씩 찾아다니며 모집하는 과정이 나온다. 이는 독자 또는 관객에게 각 인물의 사연과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기대감을 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혼자서 아닌 협력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공동 협력의 주인공들이라는 하나의 형태인데, 모집 과정이 재미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26년>의 기본적인 구조는 복수의 대상인 대립자(전두환)를 처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자녀와 또 다른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던 이가 주인공이자 조력자가 된다는 설정이다. 정연식의 웹툰 <더 파이브>에서는 주인공이 복수를 위해 조력자를 구하여 복수에 성공한

다. 복수의 대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힘없는 개인이 모여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갖추으로써 복수의 대상과 비로소 맞설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2) 등장인물

<26년>에는 한 명의 실존 인물과 실명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과 생존해 있는 인물이라는 점, 5·18민주화 운동의 주범이라는 점이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요소였다. 가상의 인물과 실존 인물의 결합에 의하여 역사적 사실을 픽션화하여 긴장감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주요 등장인물의 직업은 대기업 회장·국가대표 사격선수·조직폭력배·조각가·경찰관·국사교사이다. 전 대통령의 암살이란 주제를 놓고 보면, 대기업 회장과 전 대통령, 경찰관과 조직폭력배, 사격선수와 교사 및 조각가라는 인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의 호기심을 끝만한 자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갈등을 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김갑세(대기업 회장)는 광진배(조직폭력배)와 이치영(조각가)의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나온다. 여기에 전두환의 비서 중 5·18민주화 운동 당시 김갑세의 군대 후임병이자 심미진(사격선수)의 어머니를 사살한 마상열이란 인물을 배치하여 극적 긴장감의 요소를 배치하고 있다.

등장인물 중에서 상업적인 요소의 직업을 가진 인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기업 회장’과 ‘조직폭력배’이다. 암살을 주동하는 김갑세는 대기업 회장이라는 위치에 있으며, 5·18민주화 운동 당시 군인으로 투입되어 민간인을 사살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물이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인물의 후회와 반성이라는 관점에서 흥미로운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에서 재벌과 같은 기업의 회장이 가지는 이미지는 결코 친 대중적이기 보다는 친재벌적이라는 점에서 자칫 기업인에 대한 면죄부의 모습으로 독자의 마음에 각인될 수 있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조폭마누라>와 같은 폭력배와 연관된 영화가 끊임없이 제작되고 성공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강풀은 이러한 요소를 재미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이는 상업적인 요소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반면, 조직폭력배가 매체에서 의리 있고 남자다운 모습으로 비춰짐으로써 청소년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면, “조직폭력배를 등장시키지 않고 이야기를 풀 수는 없었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갑세(49세) - 대기업 회장. 5·18민주화 운동 당시 제3공수여단의 일병이었으며

당시 광진배와 이치영의 아버지를 사살했으며 이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김주안(27세) - 김갑세의 아들.

심미진(26세) - 국가대표 사격선수. 5·18민주화 운동 당시 그녀는 두 달 된 갓난아기였으며 이때 계엄군에 의해 모친이 살해되었다.

광진배(32세) -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도청에서 아버지가 김갑세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치영(31세) - 흉상 조각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아버지가 김갑세의 곤봉에 맞아 살해되었다. 같은 처지였던 한선영과 결혼하게 된다.

권정혁(27세) -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첫 돌이 막 지났을 때였으며 계엄군에 의해 아버지가 살해되었다.

한선영(28세) - 중학교 국사 교사.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아버지가 계엄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같은 처지였던 이치영과 결혼한다.

전두환(그 사람)(75세) - 1980년 5월 당시 보안사령관(육군 중장)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한 군부의 실세였다. 자신의 정권 장악을 위해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내리고, 이에 항거한 5·18민주화 운동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 대법원의 5·18 판결에서 내란수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사면되어 예전과 다름없는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음.

탁성주 - 전두환(‘그 사람’)의 비서로, ‘그 사람’의 후광을 이용해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인물.

마상열 - 전두환(‘그 사람’)의 비서. 김갑세의 군대 후임병. 5·18민주화 운동 당시 제3공수여단의 이등병이었다. 당시 심미진의 생모를 총으로 사살했다.

3) 그림과 연출

<그림 6>은 예고편에 등장하는 7인의 주요 인물이다. ① 전두환 암살을 기획하는 김갑세가 전면에 배치되어 있으며, 뒤에 ② 폭력배 광진배 ③ 사격선수 심미진 ④ 조각가 이치영이 있다. 이들은 행동을 실제로 옮기면서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주요 인물이다. 그 뒤로 ⑤ 아들이자 비서인 김주안이 있고 더 뒤로 ⑥ 경찰관 권정혁 ⑦ 이치영의 아내 한선영이 배치되어 있다. 이 배치된 인물간의 관계에서도 각 인물의 역할을 유추할 수 있게 연출하고 있다. 또한, 얼굴 표정에서 비장한 표정과 걱정스런 표정의 인물로 대비됨으로써 조력자인 7인의 관계에 갈등이나 위기가 있을 수 있음을 연출하고 있다.



⑤ ② ① ③ ④ ⑥ ⑦



<그림 7>은 1화의 일부 장면이다. 5·18민주화 운동 당시 투입된 김갑세가 곽진배의 아버지를 사살한 장면 및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역사가 드러나는 화이다. ①의 장면은 김갑세의 독백을 통해 마음이 여리고 죄책감을 갖기 쉬운 심성의 소유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2>는 전남도청을 향해 달려가는 김갑세의 독백이다. ‘사람을 사살한 일에 대한 자기 의문 → 사살한 일에 대한 걱정 → 사살한 일에 대한 현실 인정 → 사살한 일에 대한

걱정'의 독백 흐름을 통해 현재의 김갑세가 지닌 죄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때 효과음은 거친 호흡 → 총소리 → 거친 호흡과 발자국 소리 → 거친 호흡과 발자국 소리를 통해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순서	독백	효과음
1	내 머리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방금 내가 쏜 사람이 죽은 건가...? 저, 저 사람... 내가 쏜 총에 맞아서 죽은 건가...? 내, 내가 저 사람을 죽인 건가...!!!	허억... 헉...
2	주, 죽었으면 어떡하지...!! 내,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어떡하지...!!	탕!! 타양!! 타타타타!!!
3	주, 죽었어...? 내, 내가 사람을 죽였어...?	허억...헉.. 탁탁탁탁!!!!
4	어떡하지...!!!	헉...!! 헉...!!! 탁탁탁탁!!!!

②는 ①의 장면과 바로 이어지는 장면으로써 전남도청이 배경이다. 강풀은 전남도청을 충실히 재연하고 있다. ①과 ②의 장면 사이에 “나는 반쯤은 정신을 잃은 상태로 전남도청 건물을 향해 휩쓸리듯이 쫓겨 들어갔다.”는 지문이 있다. 배경이 전남도청임을 독자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다. <표 3>은 칸의 효과음과 칸과 칸 사이의 공간에 있는 독백이다. 총 소리가 난무하는 전남도청을 향해 달려가는 칸과 다음 칸 사이에 김갑세의 독백이 이어지면서 운명의 ‘한 남자’와의 만남을 알리고 있다.

순서	효과음	순서	독백
1	탕!! 타양!! 타타타타!!!	2	머리 속에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3	탕!! 타양!! 타타타타!!! 탁탁탁탁!!!!	4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한 남자를 만났다.

③ 총상을 입은 광진배 아버지와 만난 김갑세는 광진배 아버지의 외침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장면이다. 광진배 아버지의 “너는 부끄럽지 않은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무고하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의 외침은 5·18민주화 운동을 잊어버리거나 부정하고 왜곡하는 현실의 우리에게 울림으로 다가온다.

순서	광진배 아버지 대사	김갑세 독백
1	허억..헉..너는...부끄럽지 않은가...!! 하아..하아..부끄럽지 않냐 말이여...!!	총상을 입고도 죽어가는 와중에도 그 남자는 꺾이지 않아서 나를 마주 노려보았다.
2	너가..지금...뭘하고 있는지...!! 허억..헉...부끄럽지 않냐 말이여!!!!	그 남자는 핏발 선 눈으로 꺾어짜듯이 내게 외쳐댔다.

3	허억...헉!!! 너는..지금...!!	나는...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 죽어가는 그 남자의 찰발 선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을 건넸지만...
4	허억...!!헉...!! 무고한 사람들을...!! 왜 죄 없는 사람들을...!!	나는 그 남자의 눈을 피하지도 못하고 그저 얼어붙은 듯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표 5>는 2006년의 웹툰 ① <26년>과 ②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다음에서 연재한 강풀의 최근 웹툰 <무빙>이다. <배경과 말풍선> 항목의 칸을 비교하면, ①이 평면적이고 색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설픈 부분이 보인다면, ②에서는 입체적이고 색이 자연스러우며, 그림의 완성도가 우수해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인물과 말풍선> 항목의 칸을 비교하면, 인물의 색과 배경의 색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월의 차이만큼 그림의 완숙도가 올라간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풍선의 모양은 ①과 ②에서 여전히 서툴러 보인다.

또한, ①의 글꼴이 손 글씨체의 느낌이 나는 폰트라면, ②의 글꼴은 정자체의 모양으로 써 독자가 그림을 보는데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게 차분히 읽히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배경과 말풍선	인물과 말풍선
 <p>①</p> <p>②</p>	 <p>①</p> <p>②</p>

4) 댓글

<표 6>은 <26년>의 1화 댓글 중에서 추천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3개의 댓글을 발췌한 내용이다. 댓글에서 나타나는 독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슴 뜨겁게 본 웹툰이 <26년>이다. 두 번째, 두 번 보기 힘든 마음이 무거운 웹툰이다. 세 번째, 잊지 않겠다. 네 번째,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댓글이 있다. 다섯 번째, 진실이 무엇인 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여섯 번째, 5·18민주화 운동을 너무 모른다. 일곱 번째, 초등학교 6-2학기에 5·18민주화 운동을 배울 수 있다. 여덟 번째, 초등학생을 위한 5·18민주화 운

등을 다룬 웹툰이 필요하다.

닉네임	댓글 내용
포지****	풀님 작품들 중에 가장 가슴 뜨겁게 본 작품이 바로 26년인데, 다른 만화들은 수십 번 복습하면서도 이 26년만큼은 마음이 너무 버거워서 감히 복습하기가 참 힘들더군요... 힘겹게 다시 1화를 봤는데 첫 장면부터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 있는 걸 그들이 바랄 테니까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위풍**	오랜만에 다시 읽으러 와서 댓글 보니 참 기가찬 분들도 많이 있네요. 독일기자가 찍은 당시 자료로 만든 다큐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아 실 겁니다. 역사를 모르고 그 반성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너무 슬프다 이렇게 모를까 광주사태를
날라***	초등 6-1학기 사회는 현재 역사를 배웁니다. 웬지 모르겠지만... 담임선생님께서 민주 화에 대한 운동은 제대로 수업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확실히 배우고 싶었습니다. 현재 6-2학기, 민주주의를 배우고 세계로 넘어갔습니다.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 광주 민주화 운동이 나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 사건의 주범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이룩한 이 민주주의...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사람들이 피를 흘려 민주주의를 얻어냈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감사히 여기며, 앞으로 국민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는 어른이 되고 싶습 니다...

<표 7>은 2006년 10월 13일자 웹툰인 <26년 후기-‘감사합니다’>에 달린 댓글로써 추천수가 높은 3개의 댓글을 발췌한 내용이다. 댓글에서 나타나는 독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역사 시간에 5·18민주화 운동을 교육하지 못했다. 두 번째, <26년>으로 인해 교육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26년>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소개해줄 수 있는 웹툰이다.

닉네임	댓글 내용
죽장**	고등학교 역사 선생입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5월의 진실과 의미를 학생들과 함께 생 각해볼 기회를 가지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강풀님의 만화 가 있어 올해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	눈물이 나서 중단하고 집에 와서 끝까지 다 봤네요. 강풀님, 고맙습니다. 당신 만화라면 몇 달을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완결난 것들만 하루 만에 몰아칠거임 ㅋㅋㅋ,,, 욕먹는 거는 며칠이지만, 이렇게 몇 년째 스테디셀러군요.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이런 귀중한 역할을 해낸다는 것 멋있습니다. 결말이 중요치 않다고 말해도, 우리 모두는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역사왜곡교과서 저지하고 전남도청 꼭 지켜냅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ye****	<p>저는 13살 여자아이입니다..</p> <p>아버지께서는 항상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합니다.</p> <p>바로 5.18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이 웹툰은 저희 반 담임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p> <p>저는 이 웹툰은 저희 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것과 비슷합니다..... 계엄군이야기도, 삼청교육대 이야기도...</p> <p>지금 계엄군으로부터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이것과 같았을 것입니다..</p> <p>저는 항상 항상 한편, 두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봤습니다.</p> <p>이 만화를 보면서 눈물이 툭툭 제 뺨에 흘러내립니다.(참고로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p>

5) 총평

강풀은 그림체의 우수성이나 완성도보다는 스토리텔링에 강점이 큰 작가였다. 2015년의 <무빙>을 보면 강풀의 단점이었던 그림체도 더 이상 단점이 아닌 장점화하여 그림체의 완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강풀의 이야기는 흡입력이 있어서 연재되는 화마다 독자를 웹툰에 빠져들게 하는 작가이다. 독자는 강풀의 그림체를 인정하고 즐긴다. 즉 자신의 견고한 틀을 만든 작가가 강풀이다. 무엇보다 5·18민주화 운동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대중의 인식 전환을 위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작가이다.

2. 이무기의 <곱게 자란 자식>

<곱게 자란 자식>은 2013년 8월 20일 다음에서 예고편으로 시작한 웹툰이다. 201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주목할 작가상’에 <곱게 자란 자식>의 이무기 작가를 선정하였다. <곱게 자란 자식>의 작가 이무기는 ACOMICS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질문 : 그동안 일취월장이라고 할 만큼 그림과 연출 실력이 늘었다...식민지 농민의 비극적인 드라마를 담은 <곱게 자란 자식>으로 작품 성향이 바뀐 것도 눈에 띈다...

답변 : 그림과 연출 실력이 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했기 때문이다. 시대적 배경이 배경인 만큼 부담감이 상당했고, 욕먹지 않기 위해서 한 컷 한 컷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려야 했다...

질문 : 석 달의 충전기간 끝에 드디어 2부로 돌아왔다. 연재를 기다리던 3개월은 궁금증에 고개 드는 현기증과의 싸움이었다. 생각보다 준비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답변 : 처음 <곱게 자란 자식> 5화 분량을 만들기까지 여덟 달이 걸렸다. 물론 이 기간에는 이 소재를 건드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수많은 고민, 역사를 전혀 모르던 내가 시대를 알고 이해하는 것, 연재를 위한 자료 준비 등 여러 가지 일이 포함되었지만...

이무기의 인터뷰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하였다. 두 번째, 신중하게 그렸다. 세 번째, 5화 분량을 만들기까지 여덟 달이 걸렸다. 네 번째, 시대를 알고 역사를 이해하는 것·소재에 대한 고민·연재를 위한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렸다.

질문 :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곱게 자란 자식>의 장르를 개그, 드라마, 호러 등 하나의 장르로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었던 것도 독자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작품의 매력이었다. 비극과 희극 사이에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을 만든 것은 의도한 바인가.

답변 : 먼저 의도한 것은 만화를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울고 싶은 눈 뻘 때린다고, 억울하게 만들고 싶었다. 허나 무거운 소재를 무겁게만 나간다면 보는 독자들도 질릴 것 같고, 만드는 나도 힘들어져서, 간간이 가벼운 웃음코드를 집어넣었다. 어떠한 소재든 재미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위에서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을 만든 것은 의도한 바인가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의도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독자가 조마조마하게 만들 의도가 있었다. 두 번째, 억울한 인물을 통해 독자가 억울한 심정이 되게 하고 싶었다. 세 번째, 무거운 소재 안에 가벼운 웃음코드를 넣었다. 네 번째, 재미가 있어야 한다.

질문 :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여시나비’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이 되면 시위를 하고는 하는데,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본 우익 정부에게 보내기 위해서 인가요?

답변 : 연재 도중 여시나비 측에서 홍보문구를 만화 하단에 게재하면 어떻겠냐는

메일이 왔고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떠한 단체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나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당연한 요구를 당연하게 할 뿐인데 그동안 여러 사람에게 알릴만한 매체가 변변히 없어 저에게까지 문의를 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SICAF2014에서 ‘주목할 작가상’을 수상한 이무기 작가에 대한 인터뷰 일부이다. 이무기는 각 화의 하단에 지면을 활용하여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캠페인에 동의하고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작가이다.

현재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 속한다. 그 극소수의 일부인 위
가 소수 생존해
또한 현실이다. 식
국의 역사이자 당
당한 생존자가 있
형의 역사임에도
터넷에서 망언을
있다. <그림 8>은
의 커뮤니티인 정

23	(링크)(일베총설프문지)일베 좇병신들 또 발견했다ㅋㅋㅋ [1]	2013/05/29
22	여기일베 좇병신들 존나많다(링크) [5]	2013/05/29
21	현재 조선에선 위안부관련해서 표현의 자유가 없지	2013/05/29
20	역궤성남들한테 질문. 위안부 문제 [1]	2013/05/29
19	그나마 위키는 위안부에 대해서 여러가지 적혀있네	2013/05/29
18	내가 하시모토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 [1]	2013/05/28
17	위안부 할매는 왜 갑자기 도망간거냐? [6]	2013/05/28
16	일베가 위안부로 까이니)까 반일풍으로 돌고하려한다 ㅎㅎ	2013/05/28
15	위안부를 운영하는 더러운일제.jpg	2013/05/28
14	이제 역궤러들 일베잡입은 끝났네 ㅋㅋㅋ [11]	2013/05/28
13	역궤남들 끝내는거 잘부럽다ㄷㄷㄷㄷ [2]	2013/05/28
12	역궤방송나가면 센징들 전부 화병발동해서 미칠듯 ㅋㅋㅋㅋㅋㅋ [4]	2013/05/28
11	【●】국뽕들 이제 위안부가 조작이란걸 인정할애도 못지나?【●】 [1]	2013/05/28
10	지침 애국보수 씹새끼들은 반중이나 하세요. 이게 지금 패턴이다. [3]	2013/05/28
9	★★ 덴노, 무녕왕 후손 드림 = 선전포고★★ [5]	2013/05/28
8	요즘 위안부 관련 말이 많은데 센징들은 도대체 뭘 원하는거냐? [6]	2013/05/28
7	썹센징들 논리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ㅋㅋ [4]	2013/05/28
6	베트남전 학살강간, 6.25한국군 위안부 모두 [3]	2013/05/28

안부 할머니
게시는 것
민지였던 한
시의 피해를
는 현재진행
불구하고 인
하는 이가
가생이닷컴
치/경제게시

판에 올라온 글에 첨부된 게시판을 캡처한 그림이다. 캡처한 그림의 글 제목에 “위안부 할매는 왜 갑자기 도망간거냐?”, “국뽕들 이제 위안부가 조작이란 걸 인정할 때도 됐자나?”와 같은 제목이 보인다. 5.18민주화 운동처럼 위안부 할머니도 우리가 보듬어야 할 우리의 아픔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매도하는 이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은 참으로 슬픈 한국 사회의 어두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1) 작품 소개

<곱게 자란 자식>은 1942년 일제의 식민통치에 의한 수탈이 극에 달하던 가난한 시골의 13살 소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다. 전라도의 한 마을 '피난골'에 소녀 '간난이'와 세명의 오빠, 남동생, 부모님 등 일곱 식구가 살고 있다. 가난하지만 간난이는 친구들과 나물을 캐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 그런 마을에 일제 앞잡이인 '나으리'에 의해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한다. '나으리'는 아무 집이나 들어가 살림살이를 공출하기 시작했으며, 자녀를 데리고 갔다. 집안의 어른은 살림살이와 자녀를 뒷산에 숨기기 바빴으며, 자녀가 군대징용과 위안부로 끌려가면서 마을이 짓밟히기 시작하였다.

2) 등장인물

<곱게 자란 자식>은 일제 강점기의 민중이 겪는 아픔을 그린 수작이다. 간난이라는 여자 주인공을 통해 가족과 동네 언니, 주민이 겪는 참담한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일제 앞잡이로 악랄함을 보이는 박출세는 독자에게 긴장과 울분을 토해내게 한다. 캐릭터는 간난이 가족, 마을 주민, 대립 관계의 친일파와 일본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무위키의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간난이 아버지는 박출세에게 맞아 돌아가시고 첫째 오빠는 징용에 끌려가는 중에 일본군에게 총살당한다. 둘째 오빠는 징용에 끌려가고 셋째 오빠는 징용에 끌려가는 중에 탈출하였다가 추격대에 의해 사망한다. 간난이와 친하게 지낸 순분이는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다.

간난이 - 일제 강점기 치하의 시골 마을에 사는 13살 소녀다. 일제 앞잡이 박출세가 공출 물량이 모자란다고 본보기로 부모님을 무자비하게 구타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조차 자리에서 못 일어날 지경.

박출세 - 못나고 왜소한 체격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일러바치기를 잘해 고자질쟁이, 간신배 등으로 불림. 일제 치하 조선에서 면서기가 된 이후부터 아무도 그렇

게 부르지 않는다. 사실 본명보다 박 서기라고 불릴 때가 많은 편. 악질 친일파로 전시 체제인 일본을 위해 해당 지역의 공출 업무를 담당.

심항석 - 간난이의 첫째 오빠. 간난이네 집이 공출 문제로 박출세에게 수난을 당할 때 박출세에게 밟혀 있느라 부모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갖게 되며 둘째와도 갈등을 빚는다. 후에 박서기를 칠 계획을 짜는 도중 형제들과 함께 징용에 끌려 나가는데, 수송 트럭에서 탈출하다가 다리에 총을 맞고 위기에 빠진 셋째를 구하려 울부짖으며 일본군에게 달려들었다가 총살당한다.

심용석 - 간난이의 둘째 오빠. 부모님을 일어서지도 못할 지경으로 만들고 아버지를 결국 돌아가시게 만든 박서기를 아주 조처버릴 생각으로 사람들을 주도하기도 하고 직접 하려고도 했지만 형제들과 함께 징용에 끌려가며 무산된다. 이후 징용 트럭을 타고 가다가 옆 차에서 탈출한 동생을 일본군들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울분에 차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일본군에게 제지당한다.

순분이 - 마을에서 제일 예쁜 처녀. 예쁜 얼굴이 독이 되어 여성 편력이 심한 박서기의 눈에까지 드는 바람에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 34화에서는 박출세에게 험한 꼴 당하지 않으려고 급한 결혼을 하기 직전에,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것 같다. 혼사를 겨우 나흘 앞둔 날이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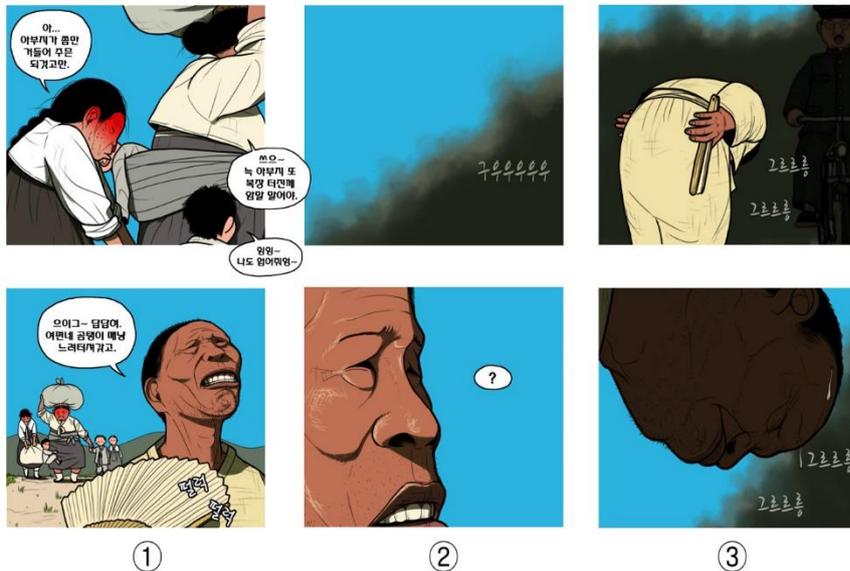
순분이 아버지 - 박서기가 강제로 혼례를 올리려 하기 전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작중 분위기가 암울해 지는 2부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자신이 그렇게 지키려던 순분이는 일본군에게 끌려가 버리게 되었고 그 이후 집안에서 밧줄로 묶인 채로 살해당해서 등장하고 만다.

3) 그림과 연출

<그림 9>는 2화에 등장하는 간난이와 순분이의 대화 장면이다. 말풍선 속 대사를 보면,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등장인물 소개에서 보듯이 순분이는 마을에서 제일 예쁜 처녀임을 알 수 있으며, 주인공 간난이는 13살 시골소녀의 수수한 모습이다. 인물의 묘사에서 보듯이 이무기 작가의 강점은 뛰어난 그림체에 있다.



<그림 10>은 한 가족이 가장의 어머니 생신 때문에 이동하는 장면이다. 이 사건의 시작부터 ③의 고개 숙인 모습까지 26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장면에서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우는 가장과 일본 순사가 지나가는 단순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②에서 검은 구름이 “구우우우우우” 소리를 내며 몰려오고 아버지는 이상한 낱새를 느낀다. ③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일본 순사의 뒤로 검은 구름이 따라오고 있다. 검은 구름은 한반도에 드리워진 먹구름이자 일제 식민통치를 상징하고 있다. “그르르릉 그르르릉” 효과음은 마치 사나운 개의 그르릉 거리는 소리를 연상시킨다. 가족에게는 권위와 가부장



적인 모습이지만 실체는 초라하기만 하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비열하면서 초라할 수밖에 없는 식민 통치 하의 아버지 모습인 것이다.

위 사건은 <그림 11>의 ④까지 35칸으로 이어지며, ⑥까지는 42칸이다. 3화는 칸과 칸 사이에 위치한 지문을 제외하고도 총 120칸으로 구성된 화이다. ④의 장면은 검은 구름을 몰고 오는 순사를 위에서 밑을 바라보는 연출로 그리고 있다. ⑤의 장면은 간난이가



④

⑤

⑥

검은 구름이 지나가기까지 동생을 감싸고 있지만 검은 구름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간 연출이다. ⑥의 장면은 간난이와 동생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연출인데, 순사의 지나가는 연출로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가족의 사건’에서 ‘간난이와 동생의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표 8>은 <그림 10>부터 <그림 11>까지 42 칸 안에 있는 일부 대사와 칸과 칸 사이의 지문이다. 순서 1 부터 4까지는 5의 ‘남자는 하늘이라고 했다.’라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연출이다. 순서 6부터 12까지는 일제 식민통치의 하늘 아래에서 일본 순사의 무서움과 백성의 고초를, 순사가 지나가는 단순한 사건으로 연출하고 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연출이 결코 단순하지 않은 연출이라는 점에서 작가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순서	대사 및 지문
1	아~빛냐? 딱딱 딱딱 안 오고?!! / 해 다 넘어가 뽕 것네!!
2	끼잉...끼잉...끼잉...
3	아! 언능 가장께!! / 으니 생신 다 끝나것네!!!!
4	아...아버지가 쫓만 거들어 주믄 되것고만. / 히힝~ 나도 업어줘영~ / 쓰으~늑 아버지 또 북장 터진께 암말 말어야.
5	(지문) 남자는 하늘이라고 했다.
6	(지문) 허나, 그 하늘에도 위가 있었으니,
7	(효과음) 그르르릉 그르르릉

8	(지문) 모두들 나으리라고 불렀다.
9	(지문) 나으리는 우리와 머리 색은 비슷했다.
10	(지문) 나으리가 나타나면, 멀찌감치 내빼거나 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11	(지문) 마주쳐서 좋을 일도,
12	(지문) 몸 성할 일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4) 댓글

<표 9>는 3화의 댓글 중에서 추천수가 높은 순서대로 댓글을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댓글에서 나타나는 독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만화는 재미있으나 가슴이 죄어온다. 두 번째, 잊을 수 없는 아픈 생체기의 역사이다. 세 번째, 일제 치하의 암울했던 민초의 고통이 잘 드러나기를 바란다. 네 번째, 스토리가 슬퍼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다섯 번째, 위안부 이야기로 갈 듯 하다. 여섯 번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웹툰이다. 일곱 번째, 예쁜 순분이를 감추고 싶게 만드는 웹툰이다. 여덟 번째, 먹구름으로 마음이 벌써 먹먹하다. 아홉 번째, 내부에서는 여자라 차별 당하고 식민지 하에서는 성노예로 끌려간 할머니, 열 번째, 하늘이란 남자가 집안에서 식구를 살피고 위하라는 뜻이다. 열한 번째, 친일과 정권으로 나라가 어지러운 시점에서 적절한 웹툰이다.

닉네임	댓글 내용
jo***	휴,,,만화는 짬있으나 점점 두려워 지고 가슴이 죄어 집니다. 잊을 수 없는 역사, 아픈 생체기가 그려지고, 그걸 통해 울분을 토해 내야 하는 게 두려워 지내요. 하지만, 요즘 세대들의 역사의 망각 속에 위안부 할머니의 고통, 그리고 일제치하의 암울했던 민초들의 고통이 잘 녹아 났으면 합니다...휴..
못생***	웬지 나중에 스토리가 슬퍼질거같은 안 좋은 예감이....;; 개그로만 웃기에는 시대가 너무 암울한터라....o_o;;
AB*****	아무래도 위안부 이야기로 가는 듯 하네여..
천재	갈수록 사람 불안하게 만드는 웹툰.... 순분이를 이쁘다 이쁘다 할수록 그 아이를 더 감추고 싶게 만드는 웹툰...
vk*****	자꾸 먹구름이 끼는 게 느껴져서 벌써부터 마음이 먹먹하다.. 내부에선 여자라고 차별 당하고 식민지가 되자 '왜'국의 성노예가 되어 끌려갔던 이 나라의 할머니들..ㅠㅠ 그리고 실제 조선사회의 남녀지위 문제는 중인이상으로 갈수록 비교적 합리적이었으나, 오히려 중인 미만의 계층에서는 잘못된 것, 남성에게 좋은 것만 왜곡되어 받아들여져 저런 비참한 현실과 차별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는 사실. 특히 임란이후 조선사회의 전통이 많이 무너져 내리면서 더욱. 저렇게 집안에서는 아내와 딸을 중부리듯 하고 외세의 침략에선 지켜주지도 못하는 한심한 안방왕자들

라플	남자는 하늘이라는 말은 하늘과 같은 노릇을 하라는 말이다. 고로 집안에서 식구들을 굶어 살피고 위하라는 뜻이지. 저런 식 으로 대접받는데 긍긍하지 말고. 하늘같지 않는 남자는 하늘 대접을 할 필요가 없다. 영감탱이 마누라 하고 딸한테 붓집함고 애들 맡기고 한량처럼 걷는 거고 보고 열 받았다. 참고로 난 남자다.
so*****	친일과 놈들이 정권을 잡아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이때 정말 적절한 웹툰이다.

5) 총평

이무기는 인터뷰에서 보았듯이 소재와 자료 준비 등에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작가이다. 무거운 소재를 다룸에 있어서도 재미라는 요소를 중요시하는 작가이다. 이무기 작가조차 역사에 관심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또한, 독자가 역사만화를 좋아할지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반응이 높은 이유는 독자가 감정몰입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연출, 우수한 그림체, 역사성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질문 : 팬들에게 한 마디.

답변 : 나 역시 역사에 관심이 없었던지라 이 만화를 할 줄 몰랐고, 과연 역사만화가 독자들에게 먹힐지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많은 분이 관심을 주셨고,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곱게 자란 자식>은 일제 식민통치하의 한 시골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제도권 교육에서 하지 않거나 형식적일 수 있는 역사를 웹툰이 대신할 수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5·18기념재단에서 5·18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하여 이무기 작가에게 최소 6개월 이상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1차 지원과 웹툰 연재를 위한 제작에 2차 지원을 한다면, 한 편의 웹툰에 의해 독자가 두려워하고 가슴 아파할 현대사의 비극인 518민주화 운동을 우수한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가 이무기 작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3. 주호민의 <신과함께>

주호민의 <신과함께> 저승편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네이버에서 연재된 웹툰이다. 2010년 독자만화대상에서 ‘온라인만화상’, 2011년 부천만화대상에서 ‘우수이야기만화상’, ‘대한민국 콘텐츠어워드 만화대상(대통령상)’, 독자만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1) 작품 소개

39살에 죽음을 맞이한 주인공 김자홍이 저승에서 겪는 이야기이다. 저승에도 국선 변호사가 존재한다. 자신에게 선임된 국선변호사 진기한의 도움과 김자홍의 선함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과정이 그려진다. 저승이라고 하면, 두렵고 무섭게 전개해갈 것 같지만 <신과함께>는 저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우리의 신화를 재미있게 그려냄으로써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웹툰이다.

2) 등장인물

<신과함께>의 주인공인 김자홍과 저승차사(저승사자)인 강림도령, 해원맥, 이덕춘이 저승으로 데려가는 역할로 나오며, 국선변호사인 진기한이 김자홍의 변호를 맡는다.

위키백과의 주요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김자홍 - 주인공. 아주 평범하게 살다 죽은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직장인. 향년 39살의 일기로 직장상사의 강요에 의한 음주로 인한 암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미혼. 지극히 평범한 인물.

강림도령 - 저승삼차사의 리더. 마을 입구에 차려진 진수성찬이 '사만이'의 뇌물인 줄 모르고 먹었다가 사만의 수명을 늘려준 과오 때문에 자신이 직접 차사의 임무를 하지 않게 되었고 실질적인 차사의 임무를 해원맥과 이덕춘에게 일임시켰다. 강림도령은 주로 도망치는 원귀를 잡는 것과 나머지 차사인 해원맥과 이덕춘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고소공포증이 있으며 불쌍하게 죽어간 유성연과 김희승의 사연을 듣고 소대장에게 낙인을 찍어 남은 인생과 상관없이 사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유성연 사체유기 목격자인 송구현을 협박하여 유성연의 억울함을 풀었다. 사인검의 사용역량 등의 능력은 해원맥보다 못하며 성격도 개차반스러운 점이 많아서 염라대왕을 난감하게 하기도 한다. 특히 염라대왕이 특별히 강림도령에게만 허락한 낙인을 너무 남발해서 염라대왕으로부터 이승에 참견한다고 크게 혼나고 사만의 뇌물을 받아먹은 것 때문에 차사직책을 박탈당할 '뺨'하기까지 했지만 하지만 차사로서 영혼을 인솔하는 능력은 으뜸이다.

해원맥 - 일직차사, 이덕춘과 같이 저승사자의 일을 하고 있다. 강림도령의 밑에서 일하지만 사인검의 사용법을 완벽하게 터득하여 강림도령을 쓰러뜨린 유성연의 악귀를 진압시킨다. <신과함께>의 신화편 차사전에서 몇 만년 전 한 고을의 군관으로 나와 성격이 너무 골은 탓에 변방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이덕춘(월직차사)를 보호하려다 죽게 된다.

이덕춘 - 월직차사, 저승사자 중 막내. 원래는 저승사자 3인방이 모두 남자이지만 극중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작가 주호민은 월직차사만은 여자로 설정했다. 다른 능력은 대부분 뛰어나지만 완력은 약한 편이기 때문에 해원맥이 언월도 대신 권총을 사용하도록 했다. 저승차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이 많아 해원맥과 강림에게 구박을 많이 받는다. 또 육감이 발달하여 사람을 찾는 능력이 있다. 극중 강림도령을 짝사랑 하는 듯하다.

진기한 - 신입 국선변호사. 머리가 상당히 비상하며 결단력 또한 탁월하다. 재판이나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즉시 준비해두고 심지어는 의뢰인인 김자홍을 위해서 천식물원에 침투하여 도둑질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송제대왕에게 관관직을 제의받기까지 했으나 심판은 적성에 맞지 않고 영혼을 구제하는 쪽이 적성에 더 잘 맞는다 하여 거절했다. 또한 200년만의 신장급 변호사 자격을 얻을 기회조차 같은 이유로 스스로 포기한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다.

3) 그림과 연출

<그림 12>는 1화의 세로 스크롤 방식의 웹툰을 편의상 편집하여 나란히 배치한 그림이다. <신과함께>는 보여주기 방식에서 웹툰의 세로 스크롤이지만 칸 배치에서는 웹툰이 아닌 출판만화의 칸 배치를 따르고 있다. 즉 1화는 ‘세로로 배치된 칸’의 개념이 아닌 ‘세로로 배치된 페이지’ 개념이며, 6페이지로 구성된 웹툰이다. 쉽게 이해하자면, 6페이지를 순서에 맞게 세로로 배치한 보여주기이다. 이 방식은 출판만화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편안한 보기의 방식이다. <그림 12>에서 1화의 칸 수는 총 39칸이다. 다른 웹툰에 비해 칸 수가 적지만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주 2회 연재하였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분량이다.

김자홍이 2009년 겨울에 죽는다. ‘정장’을 입은 두 명이 등장하여 저승차사라고 하며, ‘염라국 소속’, ‘저승’의 전통적인 용어 외에 ‘싸인’, ‘전설의 고향’, ‘입국 동의서’, ‘입국’, ‘강제집행’의 현대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덕춘이 “이 저승 입국 동의서에 싸인을 하셔야 저승 입국이 가능하시구요”에 대한 질문으로 김자홍이 “만일 내가 싸인을 거부하면 난 다시 살아납니까?”라고 묻는다. 이에 해원맥이 “그럴 땐 강제집행될 것이요. 형식적인 절차이니 피차 피곤해지지 맙시다.”라고 경찰처럼 말한다. 김자홍이 “그냥 물어본 거예요.”라고 답하는 장면에서 지문이 ‘솔직히 좀 쫓았다.’이다. 이처럼 현대적인 용어와 현대적인 대사는 저승과 신화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게, 독



자가 웹툰을 즐길 수 있게 한다.

<그림 13>도 2화를 편의상 편집하여 나란히 배치한 그림이다. 2화의 칸은 38칸이며, 페이지로 보면 7페이지이다. 배경은 일산의 대화역이며, 실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대화동에 있는 일산선 전철역이다. 역에서 기다리는 강림도령이 “어으, 추워”라고 한다. 저승사자가 춥다는 설정이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어색하지 않다. 막차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는데, 김자홍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새벽 다섯 시라 지하철이 아직 안 다니는데요”라고 말한다. 이에 이덕춘이 “저승열차는 새벽 2시부터 새벽 5시 운행이에요. 그래야 이승열차랑 안 부딪치거든요.”라고 답한다.

저승사자가 춥다는 설정이나 저승으로 가는 지하철의 설정을 위해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어색하게 느끼지 않고 감정이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연출 실력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하겠다.

주호민은 김자홍이 가는 저승길의 과정에 다른 사건을 연출하여 스토리텔링을 풍성하게 만든다. 녹색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가 “이대론 못 죽어”라며 지하철 문밖으로



도망친다. 도망친 이는 군대에서 죽은 병사이다. 군대 의문사를 다루고 있는 사건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된다.

4) 댓글

<표 10>은 2화부터 8까지의 댓글 중에서 'BEST댓글'에 오른 일부 댓글을 발췌한 내용이다. 댓글에서 나타나는 독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외할아버지 장례식도 거기서 치르셨다. 두 번째, 우리 할머니도 저러고 계실까? 세 번째, 좀 더 잘해드릴걸 너무 후회스럽다. 네 번째, 나는 부모님께 효도는 했을까? 다섯 번째, 내 한 마디로 누군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여섯 번째, 효도를 실천 못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다.

화	닉네임	좋아요	댓글 내용
---	-----	-----	-------

2	ch***	1,768	대화역이면 일산백병원에서 장례식 치렀네. 외할아버지 장례식도 얼마 전 거기서 치르셨는데...
3	as****	2,913	아...오늘 할머니 장례식 같다 왔는데 우리 할머니도 저러고 계실까 ㅠㅠ
3	dl****	47	우리할머니도 저러고 계실까...아플 때도 자식 손주 생각 돌아가기 직전에도 나를 찾을 땐...그땐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던 그때가 너무 후회스럽다 좀 더 잘해드릴걸 좀 더 잘해드릴걸 이후회가 너무 싫다...할머니...극락왕생하세요. 사랑합니다...
5	jy****	159	아..49재..3년째에 하는 제사..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49재를 지내았는데 웬지 공감되네요. 왜 이제 봤지? 혹시...저희 할아버지도 저러고 계신 거....?
5	ks****	142	지옥 설명 들을 때마다 마음이 짠해진다. 나는 부모님께 효도는 했을까. 내 말 한 마디로 누군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었을까. 남에게 베푼 적이 있었을까. 나는 정말로 남에게 좋은 사람이었을까...
8	ve****	9	불효자가 너무 많아 수용 인원이 초과했다라... 참 마음아프름... 이런 데에다 효도해야지 싸질러도 절대 실천 못 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다... ㄷㄷ

‘BEST 댓글’에 오른 댓글이라는 점에서 해당 댓글에 동감한 독자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돌아가신 할머니·할아버지 생각, 후회스런 일에 대한 반성 등 웹툰을 보고 독자는 마음에 의미작용이 일어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단계까지 보이고 있다.

5) 총평

주호민의 <신과함께>는 저승과 신화라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독자의 감정이입과 자기반성까지 의미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웹툰이다. <신과함께>는 그림체의 완성도보다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4. 시니/허노의 <죽음에 관하여>

2012년 8월 29일 예고편으로 네이버에서 연재를 시작하였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유료화가 된 웹툰이다. 총 29화로 완결되었다. 예고편부터 4화까지는 무료이지만 5화부터 완결인 23화까지 대여기간 2일에 회당 200원, 전회는 4,600원에 대여기간 7일이다. 구매는 회당 300원이며, 전회는 8,700원으로 영구소장이 가능하다.

1) 작품 소개

<죽음에 관하여>는 ‘죽음’을 소재로 다룬 웹툰이다. 죽음이란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 때

문에 독자로부터 기피 대상이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인기를 끈 웹툰이다. 인터넷 서점인 알라딘에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웹툰 정식연재의 시작과 동시에 많은 관심을 받으며 순식간에 인기몰이를 한 <죽음에 관하여>. 매 화마다 다른 소재의 죽음을 통해 다양한 교훈과 감동을 주고 독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기에, 지난 삶에 대한 회상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여운을 줄 수 있는 작품이다.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낯선 곳.. 아주 넓고 아무것도 없는 곳.. 이곳에서 유일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 하였고 이곳에 오기전의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한다. 그렇게 그와 함께 걸으며 이곳에 오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의 삶의 되새기는 느낌이 모두 다르다. 눈물을 보이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 무표정한 사람, 그리고 웃음 짓는 사람.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또한 모두 다르다. 그들은 친구였을 수도 가족 혹은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 조금 전까지 나와 아무관계 없던 사람일 수도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죽음에 관하여>가 독자에게 다음과 같이 의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독자는 웹툰 속의 죽음을 통해 교훈과 감동을 받는다. 두 번째, 지난 삶에 대한 회상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준다.

나무위키에서는 <죽음에 관하여>를 댓글이 평균 9,000개 이상 달리며, 35,000개가 달린 웹툰이라 소개하고 있다. 독자가 <죽음에 관하여>란 웹툰을 보며, 죽음이란 소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감정이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개 웹툰은 코믹, 액션, 혹은 일상생활을 소재로 다루는데, 이 웹툰은 독특하게 “죽음”을 주제로 서술 트릭을 교묘하게 사용해 가며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스토리가 이어지는 .5화를 제외하면 대부분 9천 개 이상의 리플이 달렸으며, 특히 3.5화와 4화에는 평균의 세 배 정도인 28,000개가 넘는 리플이 달렸고 21화는 마지막화 예고와 소방관이란 소재로 35,000개가 넘는 리플이 달렸다.

2) 등장인물

매 화마다 다른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 신을 만난다. 각 화의 죽음을 맞이한 인물은 죽

기까지의 사연이 모두 다르다. 죽음을 다루는 과정이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신선하여 독자는 이야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흡입력이 있다.

나무위키의 <죽음에 관하여>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1화에서 죽음을 맞이한 인물은 남편이며, 원인은 교통사고였다. 남편은 아내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후회를 가지고 있다. 2화에서 신을 만난 인물은 한 사형수이며, 원인은 사형수가 되기 전 집에 침입하여 부부를 살인하였다. 하지만, 신에 의해 사형수는 자신이 죽은 남편이 되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신 - 신답게 몸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뜬금없이 변신하는 등 온갖 괴상한 짓을 다 할 수 있다. 죽어서, 혹은 생사의 기로에 서서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반말을 하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대하는 편이다. 단, 작든 크든 간에 '죄'를 지은 자들은 예외 없이 벌하는 냉정한 면도 있다. 사실상 모든 화에 출현하는, 일종의 주인공 포지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실은 인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 방관자로, 그가 어떤 이를 '현실'로 되돌려 보내주는 것 같은 연출은 실제로는 신이 한 일이 아니라 현실 속 누군가가 저지른 일의 결과다. 신은 단지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에 맞는 연출을 할 뿐.

삶과 죽음 사이에 선 인물들에게 말을 걸고 깨달음을 주며, 죽은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편이지만 죽음에 예외를 두거나 현실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DC 코믹스의 죽음과 꽤나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의 공간이 사후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선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비슷하다.

남편 - 1화의 인물, 교통사고를 당해 저승에 오게 됐다. 종교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며, 죽기 직전까지 아내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했다고 후회한다. 그런 그에게 신은 완전히 텅 빈 세상을 보여주며 "無라는 건 이 정도야. 아무 것도."라고 말한다. 그 뒤 남자는 깨어나고, 깨어난 남편을 보고 아내가 울며 괜챦냐고 묻자 남편은 "아무 것도 아니야. 아무 것도."라 말한다. 물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해준 게 없지만 서로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줬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고, 아내가 안심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교통사고로 겪은 고통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

4789 - 2화의 인물, 택배 왔다면서 문을 열게 한 살인마에게 살해당한 기억을 갖고 저승에 온 인물. 오자마자 아내의 안부를 묻지만 아내도 똑같이 당했던 말을 듣고, 아내와 자신을 죽인 살인자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소리를 듣자 "신도 별거 없네ㅋㅋㅋ" 라며 부조리함을 한탄한다. 이후 살인자가 지옥에 가게 되는지 묻는

데, 신이 "지옥? 그런 건 없어.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게 만들지."라고 답하자 그런 놈이 참회를 하겠냐며 어이가 없어 한다. 이후 신은 칼에 찔릴 때의 느낌을 묻고, 4789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을 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대답한다. 잠시 뒤 4789를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신은 "때가 왔네." 라며, 여기서 느낀 걸 까먹지 말라는 말과 함께 그를 원래 세상으로 보내주는데...

그의 정체는 바로 저 살인 사건을 저지른 연쇄살인마였다. 4789는 죄수번호.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해 신이 그를 잠시 저승으로 데려와 희생자의 기억을 심어줬던 것이다. 이후 교수대로 향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런 살인마는 참회하지 않을 거라던 그의 모습을 되짚어 보면 집행인들이 너 같은 놈도 눈물을 흘리냐고 말하는 것도 꽤나 인상 깊다.

3) 그림과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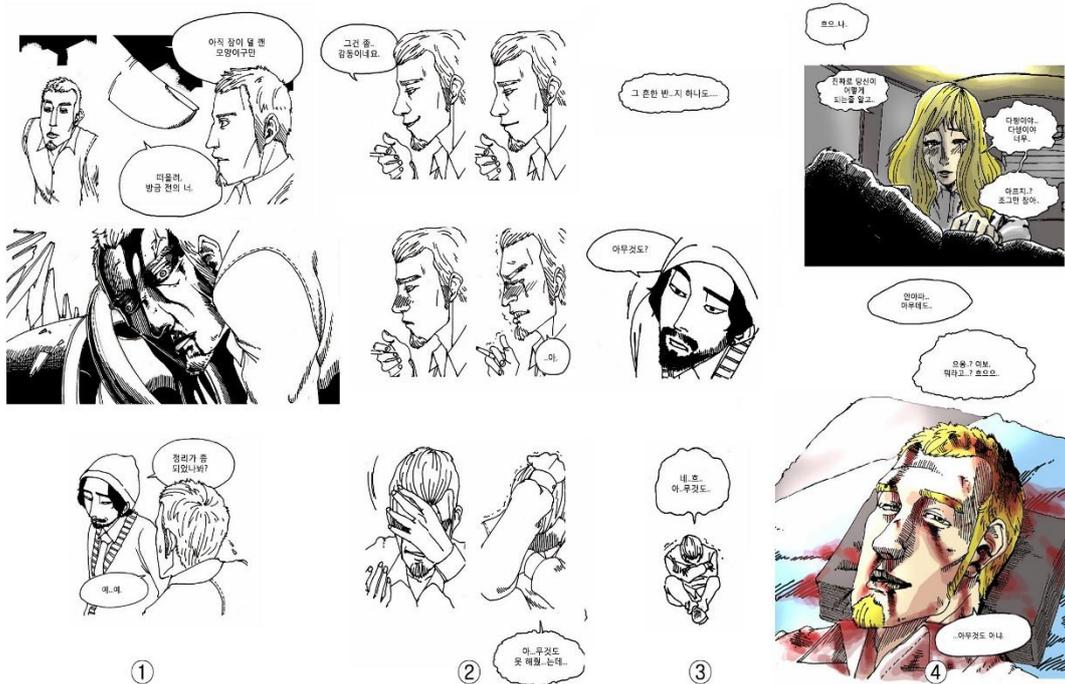
<그림 14>는 1화의 전반, 중반, 후반의 중요한 칸이다. ①의 장면은 죽음을 맞이한 ‘남편’이 신에 의해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게 된다. 첫 번째 칸에서 세 번째 칸까지 총 23개의 칸이 있다. 두 번째 칸에서 신이 “아직 잠이 덜 깬 모양이구만”, “떠올려, 방금 전의 너.”라는 대사를 통해, ‘남편’은 여덟 번째 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음을 인지하게 된다. 열여섯 번째 칸에서 신이 “여긴 아무데도 아냐.”, “아무 것도 아니고.”라고 말한다. 스물세 번째 칸에서 신이 “정리가 좀 되었나봐?”라고 하니 죽음을 맞이한 ‘남편’이 “예...예.”라고 당황하며 대답한다.

②의 장면 앞에는 ‘남편’이 “차라리 잘됐어요...지쳐가고 있었거든요. 일..짐...빛...독촉...”, “아내가 혼자서 잘 살아갈지...그건 걱정이지만.”라고 말하니 신이 “네 아내? 지금까지 실신만 세 번째.”라고 답한다. ②의 장면은 삶에 지쳐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남편’이지만 아내에게 아무 것도 못해준 후회를 보여준다. “그건 좀..감동이네요.”라고 말한 후 곧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아,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③의 장면은 ②의 칸과 이어지는 장면으로써 ‘남편’이 “그 혼한 반...지 하나도...”라고 울먹이며 말한다. 이에 신이 “아무것도?”라고 묻는다. ‘남편’은 “네...흐..아..무것도..”라고 후회로 주저앉아 울먹이고 만다.

④의 죽음으로부터 깨어나기 이전 장면에 신이 묻는다. “아무것도..”, “...아무데도.”, “아무것도.” ④의 장면에서 남편이 의식을 차리자 눈물을 흘리며 아내가 “진짜로 당신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다행이야...다행이야 너무..아프지..? 조금만 참아..”라고 말한다.

칸과 칸 사이의 여백에는 남편과 아내의 말풍선과 대사만이 있다. 남편이 “안아봐...아무



데도..”라고 안심 시키자 아내가 “으응..? 여보, 뭐라고...? 흐으으..”라며 걱정으로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 이에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의 입술에 미소가 보이며 “...아무것도 아냐.”라고 말한다.

죽음을 맞이한 인물과 신이란 얼핏 단순해 보이는 구조는 독자를 지루하게 하고 재미를 놓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가는 생각할 여지를 주는 주제 의식을 가지고 연출의 묘미를 통해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독자가 좋아하는 웹툰의 기본적인 요소는 프로로서의 최소한의 그림체가 있고 좋은 스토리텔링과 연출이면, 독자를 감정이입 시키는데 충분하다.

4) 댓글

<표 11>은 1화의 댓글 중에서 ‘BEST댓글’에 오른 일부 댓글을 발췌한 내용이다. 댓글에서 나타나는 독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독자가 다른 독자를 위해 해설한다. 두 번째, 부모님께 아무 것도 못해서 죄송하다. 세 번째, 부모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네 번째,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하다.

1화의 ‘BEST댓글’ 중에서 닉네임 ‘wo*****’의 댓글은 ‘좋아요’가 22,917이며, ‘싫어요’가 360개이다. 이 댓글은 웹툰이 철학적인 주제이다 보니 이해 못하는 독자를 위해 친절히 해설해주고 있다. 그런 고마움에 대해 22,917명은 고마움을 표시하고 360명은

싫다고 표시한 것이다. 인기가 높았던 <신과함께>의 댓글과 비교하면 이 숫자가 얼마나 높은 지를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싫다고 하는 독자도 있는 것을 보면, 인터넷의 다양성에 당혹스럽기도 하다. 360명이 싫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왜 싫은 지 궁금할 지경이다.

닉네임	좋아요	싫어요	댓글 내용
wo****	22,917	360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신이 데려옴 남자가 정리를 마치고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며 한탄함 신이 주워 것들을 다 없애며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아내에겐 제일 좋은 것이란 걸 알려줌
qk****	2,059	120	아무것도... 절대자님께서 아무 것도 라고 하시면서 모든 그림을 지울 때 순간 멈춰졌습니다. 항상 부모님께 아무것도 못해서 죄송했는데 제가 부모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는 것을 이번 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ba****	856	48	'아무것도' 가 無 그 자체라고 했으니 '아무것도 아냐' 의 의미는 사실 '無가 아냐' 라는 말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즉 남자는 여자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했지만 신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 '아무것도' 는 아예 無 그 자체인 것을 보여주며 죄책감? 을 덜어준 게 아닐까요?
zl****	562	19	레알 최고의 웹툰 정주행 역주행 볼때마다 짱한 웹툰

5) 총평

시니/허노의 <죽음에 관하여>는 죽음을 소재로 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수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독자에게 반응을 주는 웹툰이다. 바쁘게 살아가고 힘든 삶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이란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웹툰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IV. 5·18기념재단과 웹툰의 전략적 접근방법

웹툰이 가진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젊은 세대에게 친숙한 매체이다. 출판만화 시대가 저물고 등장한 웹툰은 문화 콘텐츠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 대본소에서 보던 만화 대신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는 세대로 교체되어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두 번째, 주관적인 시간의 흐름이 있다. 영화나 드라마가 일방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반면, 웹툰은 독자의 주관적인 시간의 흐름이 존재한다. 즉 수동적인

관객이 아닌 능동적인 독자로서 마우스를 사용하여 이야기의 시간적인 흐름을 제어한다.

세 번째, 독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웹툰의 매 화 밑에는 댓글을 볼 수 있고 쓸 수 있는 댓글쓰기가 있다. 이 댓글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의 칼로 인식되고 있지만, ‘좋아요’와 같은 추천 제도에 의해 좋은 의미를 가진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아 가장 앞에 배치됨으로써 댓글의 부정적인 면을 해소시킨다. 독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댓글은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는 마음을 움직인 내용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추천이 높은 댓글은 많은 독자가 댓글의 내용에 공감함을 의미한다. 좋은 댓글에 추천하는 독자가 많음은 댓글조차 긍정적이며 교육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 번째, 독자는 등장인물에 감정이입한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힘든 상황에 몰입하여 긴장하고 주인공과 함께 행복해한다. 이처럼 웹툰도 주인공과 주변 인물에 감정이입하는 콘텐츠이다. 다섯 번째, 스토리텔링이 있다. 감정이입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 존재하고 그 인물의 이야기에 빠져 함께 하는 이 과정이 스토리텔링의 힘이다. 5·18민주화 운동을 이해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독자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 주인공과 주변 인물의 설정이다. 그리고 주인공이 처한 환경과 상황의 묘사, 고난과 역경에서 헤쳐 나가기 위한 갈등과 위기의 이야기인 것이다.

웹툰은 어린이부터 청소년과 젊은 세대에게 재미있는 매체이자 영향을 미치는 매체이다. 매체가 어떠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대안 중의 하나가 웹툰이 될 것이다. 웹툰만이 아닌 폭넓은 의미로써 웹툰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를 향해 말하고자 하는 바의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다음은 대안으로써 5·18기념재단에 제시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이다.

첫 번째는 <오월문화상>이며, 두 번째는 <오월의 문화초대석>이다.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의 다변화>이며, 네 번째는 <작가의 전략적 콘텐츠 창작 지원 정책>이다.

1. 웹툰의 접근방법1 : 오월문화상

사회에 기여한 이에게 권위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상을 수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본 연구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가칭 <오월문화상>은 생명이 생동하는 오월이자 5·18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오월에 교육·민주·인권·역사 분야 등에 문화적으로 기여한 공을 인정하는 상이다. 다른 가칭으로는 <오월문화콘텐츠상>과 <오월

만화상>이 있다. <오월문화콘텐츠상>은 콘텐츠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상업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오월만화상>은 ‘만화’라는 콘텐츠로 한정시킴으로써 웹툰을 포함하는 만화 콘텐츠에 집중하기 위한 방법이다.

<오월문화상>은 한국사회에 사회·문화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영향을 미친 작품을 제작한 이에게 5·18기념재단이 수여하는 상이다. <오월문화상>은 게임·드라마·만화·뮤지컬·소설·연극·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문화 콘텐츠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본 상은 형식적인 상이라는 한계를 벗어 대중에게 회자되는 상이자 수상자에게는 영광일 수 있는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본 상을 수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인지도 있는 작가를 선정한다. 특히 1회 수상자는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작가여야 한다. 상의 권위 및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다. 두 번째, 만화 분야에서 작가를 선정한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있지만 어느 시기까지는 젊은 세대에게 가장 많은 영향과 이슈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사회적 이슈를 가진 작품이어야 한다. 작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작품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우수한 작품을 제작한 작가에게 수여하는 작품에 대한 상인 셈이다. 네 번째, 작품의 주제는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진 작품이어야 한다.

1) 출판만화

만화라는 매체 안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다. 그 중에서 대상이 되는 장르는 출판만화와 웹툰, 시사만화인 네칸만화와 주로 한 칸의 만평이다. 최근의 흐름은 출판만화가 밀려난 자리에 웹툰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물론 출판만화에서 대중성과 상업성을 가진 학습만화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어린이를 독자로 하면서 교양학습만화로서 교육적인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출판만화에서는 허영만의 <오! 한강>, 정경아의 <위안부 리포트>, 박건웅의 <노근리 이야기> 등과 같은 작품이 있다. 1988년 당시에 출간된 <오! 한강>은 금기시되던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당시로는 파격적인 작품이었다. 허영만은 작가의 높은 인지도와 명망을 가진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해보였지만, 오마이뉴스의 <반공 만화 <오! 한강>, 대학생 필독서된 이유>라는 기사에 의해 배제해야 했다. 국가안전기획부가 기획하였다는 놀라운 기사 때문이었다. 역설적이게도 만화라는 매체는 대중을 설득하고 교육시키는데 중요한 매체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작품에는 해방 이후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의 과란만장했던 한국현대사가 그대로 녹아있다. 미군정시대, 한국전쟁 발발, 조봉암을 죽인 진보당 사건, 4·19와 5·16군사쿠데타, 박정희 유신독재, 광주민주화항쟁, 5공화국, 인천사태, 건대항쟁, 6·10항쟁, 6·29선언의 굵직한 사건을 다뤘다. 의아한 것은 이 작품이 당시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가 기획한 반공 만화였던 것이다.

정경아의 <위안부 리포터>는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목차를 보면, 일본군의 위안부였던 네덜란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작품에는 해방 이후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의 과란만장했던 한국현대사가 그대로 녹아있다. 프롤로그 | 모자 속의 비밀 - 네덜란드 여인 안의 이야기
제1장 | 푸른 눈의 '위안부' - 전쟁과 공간
사이만화 1 - '위안부', 정신대, 성노예?
제2장 | 아소의 기묘한 여행 - 일본군 '위안소'에 대한 보고서(상)
제3장 | 아소의 기묘한 여행 - 일본군 '위안소'에 대한 보고서(하)
사이만화 2 - 인신매매는 국제법 위반
부록 1 | 깎두기 여행기 - 이옥선 할머니를 따라 만주에 가다
부록 2 | 일본군 '위안부' 연표

다음은 인터넷 서점인 알라딘의 <위안부 리포터>에 달린 닉네임 '푸른학'의 <위안부의 생생한 실태>란 제목의 서평에서, 푸른학은 '만화라서 다행인데 읽기 쉽고 내용전달이 빠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2006년 겨울방학 책따세 추천도서로 위안부 문제를 다룬 만화책이다. 처음에는 글과 사진이 삽입된 그런 책인 줄 알았다. 하지만 만화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읽기 쉽고 내용전달이 빠르기 때문이다. 과연 위안부 문제를 만화로 어떻게 풀어놓았을지 궁금해 하며 읽었다. 그 결과 참혹한 위안부 문제를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다.

책의 첫 내용은 네덜란드의 위안부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자바 섬을 일본군이 점령하여 섬에 있던 여자들을 강제로 위안부로 끌어들였다. 그곳에 안 할머니도 있었다. 안 할머니는 수십 년을 비밀로 묻어둔 채 살다가 TV에

서 한국 할머니가 증언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증언을 했다. 안 할머니는 와리바시라고 젓가락을 정수리에 꽂는 일을 당해 평생을 모자를 쓰고 살다가 모자를 벗었다. 이 부분을 읽으며 안 할머니의 뜻 있는 용기에 감동했고 와리바시라는 일본군의 만행에는 경악을 했다. 그러나 계속 읽으면서 와리바시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안부는 일본군의 성병 발병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부터 아래 기관들까지 총동원해 일본군 주둔 지역에 위안부가 없는 곳이 없었다. 그러나 성병은 여전했다. 그냥 일본은 군인들의 쾌락을 위해 이 일을 해 준 것이다. 위안부에 사기, 강제, 협박 등으로 끌려간 여성들은 대부분 조선인이었으며 그들의 생활은 처참했다. 매일 수십 명의 일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며 병이 걸려도 그저 버티는 수 밖에 없었다. 일본군이 주둔지에서 패배해 자살을 할 때면 그녀들은 강제로 죽임을 당했다.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다. 정말 끔찍했다. 이런 끔찍한 곳을 일본은 군 주도하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다. 단지 강간을 위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정말 혐오스럽고 역겨웠다.

그냥 대충 알고만 있던 위안부 문제를 생생하게 깨닫게 해주었다. 이 일을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아무리 당시 천황폐하 만만세인 국가주의 사상이었다고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이신 이옥선 할머니는 항상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 말은 정말 옳으신 말씀이다. 우리는 일본 때문에 잃은 것이 많다. 또 앞으로도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야만 한다.

박건웅의 <노근리 이야기>는 6·25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사건을 다루고 있다. 알라딘의 <노근리 이야기>에 대한 책 소개를 보면,

실화 소설 <그대, 우리 아픔을 아는가>를 원작으로 노근리 피난민 학살 사건을 만화로 재구성한 책이다. 작품 속에 생존자들의 증언과 '노근리 학살 사건 상황도' 등을 통해 당시 사건을 생생하고 일목요연하게 전달한다. 2010년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노근리사건 발생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여전히 전쟁 이후의 역사전쟁과 인권전쟁은 종식되지 않았고, 그 불길은 타오르고 있다.

1부가 정은용(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시선을 통해 6.25 전쟁의 시작과 전개, 피난, 가족의 이별과 생사의 엇갈림, 부산의 피난민 수용소에서 재회한 부

인의 입을 통해 알게 된 아들과 딸의 비참한 죽음, 그리고 더불어 드러나게 되는 노근리 쌍굴다리에서의 미군 만행의 진상 등으로 전개되었다면, 진상규명의 지난한 과정을 다루고 있는 2부는 전후에 태어난 그의 아들의 시선을 통해 전쟁의 상흔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그것이 어떻게 극복되는가를 보여준다.

전후 억압적인 정치 상황 속에서 사건은 어둠 속에 묻히게 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외로운 싸움이 촘촘하게 묘사된다. 사건을 사실로 만들기 위한 자료 수집 과정과 이를 통해 언론이 움직이고 마침내는 미 정부의 사과로 이어지는 과정은 전쟁이 형클어 놓은 실타래를 푸는 또 하나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한쪽에선 죽이고, 한쪽에서는 치료해 주는’ ‘두 얼굴의 이방인들’로서 사람들의 생명을 손아귀에 쥔 자들이었으나, 명령 체계의 말단에서 학살을 실행한 이들 또한 체제의 피해자임을 보여 준다. 이것은 작품의 지향점이 반미가 아니라 반전이며 전쟁이 만들어지는 체제에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닉네임 ‘드림모노로그’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면서, 슬픈 기억이자 아픈 상처였지만 이제는 전쟁·인권과 평화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선물로 만화책을 받고 엄청 좋아했는데... 만화책 치고는 엄청 두껍다. 그러나 만화라고 결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한국전쟁 당시에 양민학살을 가감하게 드러낸 만화였고 노근리사건은 반세기 동안이나 역사의 뒷안길에 묻혀 있던 슬픈 기억이자 아픈 상처였다. 그러나 노근리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의 불굴의 의지로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고,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1994년 2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노근리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제는 전쟁·인권과 평화의 대명사가 되었다.

<위안부 리포터>와 <노근리 이야기>는 5·18민주화 운동을 웹툰으로 그리기 위한 접근 방법에서 참고가 될 만한 만화이다. 또한, 정경아와 박건웅처럼 주제의식이 강한 만화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작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일제 식민통치를 배경으로 하는 <위안부 리포터>,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노근리 이야기>, 5·18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망월>은 아픈 시대의 흐름에 있는 만화이다. 5·18민주화 운동의 소재에 국한하지 말고 ‘올바른 역사 알리기’의 취지를 갖는다면, 출판권을 확보하거나 협의하여 다음 또는 네이버에서 웹툰으로 재편집하여 연재하는 프로그램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2) 시사만화

언론이 바로 서는 것은 중요하다. 바로 서지 못할 때 대중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휩쓸리기 쉽다. 특히 언론이 권력의 입장에 설 때 대중은 권력과 가진 자의 입장에 선동되기 쉽게 된다. 신문의 관점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신문의 관점에 따라 신문에 연재되는 만화도 그 관점에서 정치·사회를 바라보게 된다. 신문에서 만화의 역할은 전날의 대표적인 사회적 이슈를 풍자로 다룸으로써 독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신문에 연재되는 만화는 네칸 형식의 네칸만화와 한 칸 위주의 만평이 있다. 신문사의 여러 만화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만화는 경향신문의 <김용민의 그림마당>과 박순찬의 <장도리>이다. 박경철은 <만평 속 인물캐릭터인 '국정원 여직원'의 기호적 분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평은 풍자가 생명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 권력자나 부조리한 사회현상의 주체인 인물을 향해 우호적인 방향성을 가지면 풍자의 칼날이 무더질 수밖에 없다. 김용민의 만평은 부조리한 사회현상과 권력을 가진 이들을 향해 풍자의 날이 시퍼렇게 서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대상을 경향신문의 <김용민의 그림마당> 만평을 선정하였다.

만평은 신문의 일부분이지만, 글이나 사진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만화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신문 기사와 차이를 가진다... 개인의 심리적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한 방법이듯이 집단의 심리적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한 방법일 수 있다. 기사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집단의 심리적 상처를 만평은 좀 더 자유롭게 만화라는 형식 안에서 드러낸다. 정치가 만들어내는 부조리한 사회현상은 이를 수용하기 힘든 대중들에게는 개인의 상처이자 집단의 상처로 남는다. 만평은 부조리한 사회현상의 치부를 드러내며, 이를 풍자하고 조롱함으로써 정치권에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대중에게는 카타르시스를 통한 상처의 부분적인 해소와 각성의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까지 한다는 점에서 만평이 가진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경향신문의 <김용민의 그림마당>과 박순찬의 <장도리>는 <오월문화상>의 대상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작품을 그리고 있다. 경향신문과 연계하여 네칸만화나 만평을 기사나 여러 요소와 편집하여 젊은 세대가 현재의 정치·사회적 이슈를 알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칭 명칭은 <만화로 한국 사회 마주보기 프로젝트>

또는 <만평으로 한국 사회의 민낯보기 프로젝트>이다.

3) 웹툰

웹툰은 현 세대가 선호하는 매체이자 영향력이 높다는 점에서 <오월문화상>의 대상으로써 눈여겨보아야할 분야이다. 웹툰에서 시작하여 영화나 드라마로 시작됨으로써 화제를 일으킨 작품이 있다. 강풀의 <26년>, 윤태호의 <미생>과 <내부자들>, 최규석의 <송곳>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신과함께>, <죽음에 관하여>, <곱게 자란 자식>도 웹툰의 독자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작품이다.

젊은 세대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거나 미치고 있는 문화 콘텐츠 중에서 선정하여 작가 또는 감독에게 수여한다는 점에서 <26년>의 강풀이 1회 수상자로 좋은 대상이다. <26년>은 5·18민주화 운동을 콘텐츠로 만들어 독자에게 재미를 줌과 동시에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다. 또한, 강풀은 인지도와 흥행성 등의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는 작가이다.

<오월문화상>의 수상 작가에게는 상금 외에 이후의 작품에서 5·18민주화 운동·지역차별·여성 인권 등을 소재로 하는 경우에 5·18기념재단에서 추진하는 <작가의 전략적 콘텐츠 창작 지원 정책>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2. 웹툰의 접근방법2 : 오월의 문화초대석

가칭 <오월의 문화초대석> 또는 <오월의 만나고 싶은 인물>은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작가의 인력풀을 형성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다. 작가의 인력풀 형성은 필요한 일인데, 이는 우수한 작가와의 교류를 통해 정보 및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행 방법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매월 18일이 포함된 주에 행사를 진행하여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한 명씩 초대한 후, 5월에 4명을 함께 초대하여 워크샵이나 규모가 있는 오월의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때 인기 작가의 사인회와 사진을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배치할 수 있다. 작가의 출판물이 있을 경우, 책에 사인 및 판매를 허락하여 전체적인 분위기 및 홍보를 할 수 있게 허락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오월 한 달 동안 네 명을 초대하여 매주 진행하는 방법이다. 조금 다르게 진

행한다면, 매주 한 명씩 초대한 후 마지막 주에 세 명을 다시 초대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5·18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써 하루에 네 명의 특강과 대담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웹툰의 경우, 추천할 작가는 강풀(26년), 윤태호(미생), 최규석(송곳), 이무기(곱게 자란 자식) 등이다. 특히 윤태호와 이무기는 광주 출신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초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무기는 현재 가족이 광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웹툰의 접근방법3 : 스토리텔링의 다변화

이야기를 풀어가는 작가의 그림체와 연출력에 따라 독자의 감정이입은 달라지기에 작가의 역량이 중요하다. 특히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그릴 것인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웹툰에서 5·18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하는 스토리텔링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5·18민주화 운동이 소재일 때 직접적인 방법·간접적인 방법·직간접적인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된다. 직접적인 방법은 5·18민주화 운동을 주 소재로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5·18민주화 운동을 진중하게 다루는 방법이다. 간접적인 방법은 연애·모험·스릴러 등의 다양한 장르를 발굴하여 주인공의 사건 중에서 하나의 소재로 다루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5·18민주화 운동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일부 독자에게 피로감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 오거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권장할 방법이다. 직간접적인 방법은 강약을 조절하여 초반 또는 중후반에 직접적인 전개를 하고 그 이외의 과정에서 다른 장르의 접목을 통한 전개이다.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의 단점을 절충한 방법이다. 이외에도 역사적 사실을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가는 정통의 방식이 있다. <노근리 이야기>와 <위안부 리포터>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토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야기에 진실의 힘이 실리어 보는 독자에게 아픔이 그대로 전해지게 된다.

독자를 정함에 있어서 광주와 전남이 아닌 서울·경기·강원·충청·경상·제주의 독자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광주인의 입장에서 5·18민주화 운동을 기술하면 자칫 주관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5·18민주화 운동을 바라보는 접근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본 연구자를 예로 들어 구성해본 인물 설정이다. 타 지역의 실제 인물을 설정

함으로써 5·18민주화 운동의 간접적인 경험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다. ① 노무현 - 부산의 변호사 ② ? - 서울 출신의 군인 ③ 조** - 조선대학교 교수(진주에서 온 조선대학교 학생) ④ 박** - 조선대학교 교수(삼천포에서 어린시기를 보냄) ⑤ 강** - 조선대학교 의대교수(진주) ⑥ 김**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광주에서 중학생) ⑦ 어머니 - 아들을 잃은 엄마

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위키백과에서 1980년 전후의 소개를 보면, 1980년 당시의 노무현은 여유롭게 변호사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1980년 5·18민주화 운동 이전에 1979년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부마민주항쟁이 있었다. 10월 26일 박정희가 피살된 10·26사태가 없었다면, 5·18민주화 운동과 같은 참극이 부산에서 일어났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로서 부마민주항쟁 전후로부터 시작하여 5·18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까지의 민주화를 위한 과정에서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이다.

1978년 5월 무렵 판사를 그만두고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이후 세무·회계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쌓았다. 주로 조세 및 회계의 사건 등을 통해 높은 수입료를 받았다. 당시 평범한 동료 변호사들처럼 지역의 경제인과 어울리며 요트를 즐기는 등 여유롭게 생활하였다. 그러나 민청학련 사건 변론으로 이름이 높았던 김광일 변호사가 1981년 부림 사건의 변호에 참여하라고 권유했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본격적인 인권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은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회고하며, 당시 학생들이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충격을 받았는지 처음엔 변호사인 나조차 믿으려 하질 않았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슬금슬금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③ 조** 는 실제 인물로서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조선대학교로 유학온 학생이었다. 5·18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시점에서 광주에 있지는 않았다. ④ 박** 는 삼천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12살 때 아버지로부터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어린 마음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후 광주에서 결혼하여 살고 있다. ⑤ 강** 는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중 5·18민주화 운동의 참혹한 피해자를 환자로 만나게 된다. ⑥ 김** 는 광주에서 5·18민주화 운동을 중학생일 때 겪는다. 이후 대학교를 진주로 오면서 ④ 박** 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된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 후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직 지방의 기자 출신이다. ⑦ 어머니는 5·18민주화 운동 때 아들을 잃은 이후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있다.

위의 인물 중에서 군인과 어머니만 임의의 인물이다. 하지만 섭외가 가능할 것이다. 즉 실제 인물을 등장시켜 5·18민주화 운동의 사실성과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 특히 광주와 부산, 진주의 인물을 등장시켜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예로써 본 연구자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풀어보았다.

강풀의 <26년>은 5·18민주화 운동을 기초로 하는 픽션, 이무기의 <곱게 자란 자식>처럼 기본적인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픽션, 정경아의 <위안부 리포터>와 박건웅의 <노근리 이야기>처럼 직접적인 방법의 다큐멘터리 구조의 스토리텔링 등 스토리텔링의 다변화에 대한 모색이 계속 필요하리라 본다.

4. 웹툰의 접근방법4 : 작가의 전략적 콘텐츠 창작 지원 정책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사업>을 매년하고 있다. 사업목적 중에 하나는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을 통한 광주 문화산업 창작기반 조성’이다. 사업기간은 1년이며, 만화분야의 경우, ‘광주지역 신인작가 : 자유공모 / 역외·광주 기존 작가 : 지정공모(광주소재)’의 조건이 있다. 앞에서 소개한 웹툰 <더 헌터>가 역외 작가로서 지원 받은 예가 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모를 통해 웹툰을 연재하였다면, 5·18기념재단은 공모 방식이 아닌 ‘추천에 의한 방식’을 권장하고자 한다. 이는 공모가 질적 수준의 저하를 가지기 쉽기 때문이다. 추천으로 인지도 있는 작가를 통한 연재가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1) 인지도 높은 작가의 전략적 지원 정책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해낼 수 있는 작가와 연계하여 소재와 방향성을 함께 정한 후, 전적으로 작가에게 일임하는 방식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3,000~5,000만원의 제작 지원 정책, 두 번째, 소재는 5·18민주화 운동, 세 번째, 연재하는 매 화의 하단에 지원 기관 명시이다.

2) 광주외 작가 지원 정책

광주나 전남 출신의 작가를 지원하거나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에 대한 지원 정책이다. 물론 소재의 하나로 5·18민주화 운동을 다루어야 한다. 여수 출신의 허영만, 광주 출신의 윤태호,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무기가 대표적인 작가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광주 출신이나 거주 중인 작가, 두 번째, 웹툰으로 연재 중이거나 연재한 작가, 세 번째, 작품성이나 인지도가 있는 작가이다.

3) 신인작가의 전략적 지원 정책

창작 지원 정책이 정착되고 인지도가 생기면 신인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신인작가, 두 번째, 독자 대상과 장르를 자유롭게, 세 번째, 유머·모험·판타지 등의 장르 속에 민주·인권·역사 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으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스토리텔링이어야 한다.

4) 릴레이 웹툰의 지원 정책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에 우호적이고 참여적인 작가를 중심으로 다음이나 네이버와 협의하여 오월에 릴레이 웹툰을 연재하는 방법이다. 릴레이 웹툰은 가칭 <오월이 오면>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일주일에 1회 연재, 두 번째, 매회 다른 작가의 작품, 세 번째, 소재는 5·18민주화 운동, 네 번째, 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총 12인의 12작품이다.

5) 정치시사 웹툰의 지원 정책

씨네21의 <정훈이 만화>, 시사인의 <굽시니스트> 등의 풍자가 강한 작품을 연재하는 작가를 섭외하여 일주일에 1회 연재하는 방식이다. 형식은 웹툰으로써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연재를 목표로 한다.

6) <노근리 이야기>·<망월>·<위안부 이야기> 등의 웹툰 연재 지원 정책

한국의 아픈 역사적 진실을 장기간의 프로젝트에 의해 알리기 위한 방법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터넷의 출판권 확보, 두 번째, 저작권의 편집권에 대한 허락, 세 번째, 웹툰으로 연재, 네 번째, 웹툰으로 편집할 업체 선정, 다섯 번째, 예산은 업체 비용에 작가의 저작권료 포함, 다섯 번째, 네이버 또는 다음에 연재한다.

참고문헌

저서

김택근, 『새벽 : 김대중 평전』, 사계절, 2012

한국콘텐츠진흥원, 『웹툰 산업 현황 및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06.

논문

김대권, 박경철, 「토비아스의 메인 플롯 구성 방법을 통한 강풀의 웹툰 분석 : 구출과 수수께끼 플롯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40, 2015.09.

박경철, 「만평 속 인물캐릭터인 ‘국정원 여직원’의 기호적 분석」,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37, 2014.12.

인터넷

<2014년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사업 공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5.12.11.

[http://www.gitct.kr/sub.php?PID=0301&page=2&category=&searchText=기획창작
&searchType=all&action=Read&idx=7080](http://www.gitct.kr/sub.php?PID=0301&page=2&category=&searchText=기획창작&searchType=all&action=Read&idx=7080)

<26년>, 다음 영화, http://movie.daum.net/moviedetail/moviedetailStory.do?movieId=43688&t_nil_story=tabName

<26년> (만화), 위키백과, 2015.12.4, [https://ko.wikipedia.org/wiki/26%EB%85%84_\(%EB%A7%8C%ED%99%94\)](https://ko.wikipedia.org/wiki/26%EB%85%84_(%EB%A7%8C%ED%99%94))

<곱게 자란 자식>, <간난이>, <박출세>,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B1%EA%B2%8C%20%EC%9E%90%EB%9E%80%20%EC%9E%90%EC%8B%9D> / <https://namu.wiki/w/%EA%B0%84%EB%82%9C%EC%9D%B4> / <https://namu.wiki/w/%EB%B0%95%EC%B6%9C%EC%84%B8>

<노무현>, 위키백과, 2015.12.11. https://ko.wikipedia.org/wiki/%EB%85%B8%EB%ACh%B4%ED%98%84#.EC.9D.B8.EA.B6.8C_.EB.B3.80.ED.98.B8.EC.82.AC_.EC.8B.9C.EC.A0.88

<신과함께>, 위키백과, 2015.12.18. <https://ko.wikipedia.org/wiki/%EC%8B%A0%EA%B3%BC%ED%95%A8%EA%BB%98>

<일베저장소>, 위키백과, 2015.12.01,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B2%A0%EC%A0%80%EC%9E%A5%EC%86%8C#EC.A0.95.EC.B9.98_.EC.84.B1.ED.96.A5

<죽음에 관하여>, 알라딘, 2015.12.19.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

22501419

<죽음에 관하여>, 나무위키, 2015.12.19. <https://namu.wiki/w/%EC%A3%BD%EC%9D%8C%EC%97%90%20%EA%B4%80%ED%95%98%EC%97%AC>

balight, <이번에 일베 5.18, 지역비하 대놓고 저격한 아이돌.jpg>, 오늘의 유머, 2015.11.27.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24187>

SICAF, <SICAF2014 주목할 작가상 ‘곱게 자란 자식’ 이무기 작가 인터뷰>, http://www.sicaf.org/download/SICAF2014_new_award.pdf

박건웅, <노근리 이야기>, 알라딘, 2006.11.20.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857996>

ItemId=857996

시노/혀니, <죽음에 관하여>, 네이버 웹툰, 2012.09.05.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500942&no=2&weekday=thu>

윤인완/김선희, <심연의 하늘>의 시즌3 18화, 네이버 웹툰, 2015.08.29.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08261&no=51&weekday=sat>

이선필, <강풀 “가장 잘 한 일이 <26년>을 그린 것”>, 오마이스타, 2012.08.24.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770955

이정민, <반공만화 <오! 한강>, 대학생 필독서된 이유>, 오마이뉴스, 2015.12.0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5039&CMPT_CD=P0001

이하늘, <<곱게 자란 자식> 이무기 인터뷰, 시대의 먹구름 아래에 서다>, ACOMICS, 2014.04.25. <http://acomics.co.kr/archives/14055>

정경아, 『<위안부 리포터>, 알라딘, 2006.08.15.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676790>

주호민, <신과함께>, 2010.01.10.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119877&no=2&weekday=wed>

주호민, <신과함께>, 2010.01.14.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119877&no=3&weekday=wed>

하태훈, <[인터뷰] 웹툰 <더 헌터> 이태훈, 강두영 “영웅 말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워드인뉴스, 2014.12.30., <http://withinnews.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40&no=5230>

쿤다리니, <솔직히 일베에 성노예 문제를 거론하는 건>, 2013.05.29.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354444

5·18기념재단의 만화 <망월> 및 웹툰 <열두 살 삼촌>에 관한 보고서

김대권(조선대학교 문화학과 박사과정)

박경철(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1. 만화 <망월>

1) 작품 소개

(1) 제작 취지 및 작가 소개

<망월>은 5·18민주화 운동 기념재단에서 기획 주관하여 출판하였던 만화이다. 초판은 2010년 11월 27일에 5권으로 출판되었는데 2011년 수정 보완하여 2권으로 재출판 되었다. 구판과 신판의 차이는 크게 없지만 구판에 있었던 5·18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상세한 부록자료가 없어지고 5·18민주화 운동 사적지 지도로 대체되었다. 이 보고서는 2권으로 제작된 신판을 토대로 분석. 글은 만화 <친추>로 2003년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수상한 만화 스토리텔러인 김성재가 썼으며, 그림은 2005년, 2007년 오늘의 '우리만화상', 2007년 '대한민국 만화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변기현이 그렸다.

(2) 줄거리

<망월>의 장르는 여러 가지 장르가 복합적으로 섞여있지만 전체적으로 주인공 김태진이 아버지 김세환의 과거 5·18민주화 운동에 숨겨진 미스터리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다. 전체 줄거리를 살펴본다면 검사 임용이 결정된 김태진의 아버지 김세환이 전 안기부 차장 엄기웅을 죽이면서 시작된다. 평소 무기력했던 아버지 김세환을 증오하던 김태진은 아버지의 살인으로 검사 임용이 취소되고 파혼을 당하게 되자 절망하게 된다. 그런 김태진에게 한승미라는 알 수 없는 여자가 찾아와 아버지의 살인이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음을 알려준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리기 위해 김태진은 아버지의 과거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광주로 내려간다.

광주에서 김태진은 아버지 김세환과 5·18민주화 운동 당시 함께 있었던 윤시은과 시민군 대장 황창배에 대한 이야기와 5·18민주화 운동에 감춰져 있던 암매장 사건을 파헤치게 되는데 그 순간 알 수 없는 ‘권력’에 의해 방해받는다. 사건을 조사하던 김태진은 아버지 김세환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사건의 전말을 듣기 위해 서울로 향하게 된다. 아버지 김세환을 만나는 도중에 사건을 음폐하려는 사람들의 방해받지만 암매장된 아버지를 찾는 한승미와 윤태구의 도움으로 아버지 김세환을 만나지만 결국 암매장 장소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에 의해 버림받은 방해자(고중사)의 도움으로 암매장 장소를 찾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그들을 5·18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 정부를 상대로 김태진과 한승미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며 끝을 맺는다.

(3) 등장인물

<망월>의 주요 등장인물은 김태진, 김세환(김태진의 아버지), 한승미, 엄기웅, 윤태구, 고중사, 윤시은, 황창배이다. <망월>의 스토리 전개 방식은 현재와 과거가 교차해서 진행된다. 등장인물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현재에만 등장하는 인물, 두 번째 유형은 과거에만 등장하는 인물, 세 번째 유형은 현재와 과거에 모두 등장하는 인물이다. 각 인물들에 대한 성격 및 역할은 <표 1>과 같다.

등장인물		
현재만 등장하는 인물	김태진	임용대기 중이었던 검사였으나 아버지로 인해 임용이 취소되고 좌절하던 중 아버지의 5·18민주화 운동 당시 과거를 파헤쳐 재기하려는 욕망을 가진 인물. 자기중심적이고 아버지를 미워하나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면서 진실에 대한 정의감을 드러낸다.

	한승미	암매장된 아버지의 시신을 찾기 위해 김태진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열정적이고 정의감이 넘치는 성격이다.
	윤태구	암매장된 아버지를 찾기 위해 한승미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 무식하고 주먹이 앞선 성격이다.
과거만 등장하는 인물	황창배	김세환의 고등학교 선배로 5·18민주화 운동 시민군 대장으로 활약한다. 리더쉽이 강하고 열정적이다.
	윤시은	김세환이 좋아했던 고등학교 동창으로 황창배의 애인이다. 정의감이 넘치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다.
현재와 과거 모두 등장하는 인물	김세환	자신감이 부족하고 이기적이며 나약한 성격으로 5·18민주화 운동에 휘말려 정부의 스파이 역할을 한다. 이후 폐인처럼 생활하다 태진의 어머니가 죽은 이후 엄기웅을 죽이게 된다.
	엄기웅	5·18민주화 운동 당시 보안사 작전담당관으로 잔인하고 맹목적인 사상을 가진 인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고중사	정의감이 있고 사리분별력이 있지만 5·18민주화 운동에 휘말리면서 죄책감으로 인해 과거의 죄를 덮기 위해 김태진을 방해한다.

<표 1> <망월>의 등장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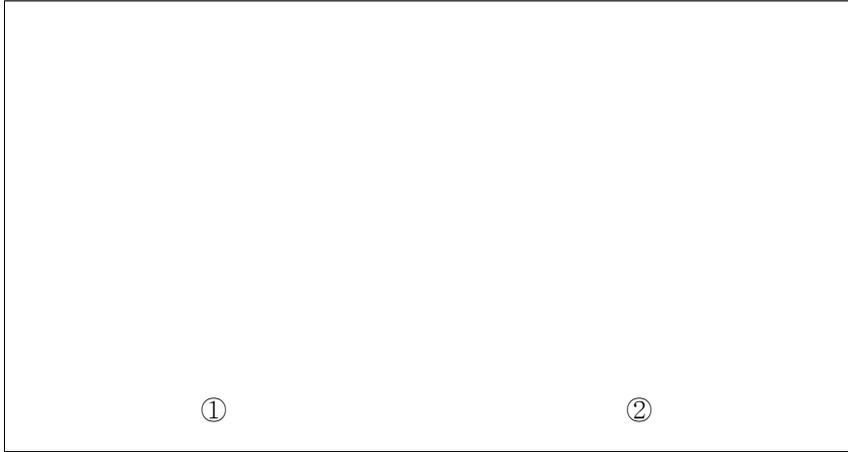
2) 그림

(1) 인물

<망월>은 흑백으로 인쇄된 출판만화로 실사체에 가까운 그림체이다. <망월>의 인물 표현은 많은 선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실사체에 비해 절제된 선을 통해 형태를 단순화하여 실사와 유사한 형태를 구현하고 있다. 얼굴 안쪽의 이목구비는 간략한 선을 통해 묘사되며 주름은 얇은 선을 통해 표현 된다. 인체의 명암은 물감의 번짐 효과를 활용하여 표현되고 있는데 얼굴에서는 눈과 코에 집중되어 있다. 인물들의 감정에 따른 표정의 변화는 크고 과장되게 표현되어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1>의 ①은 <망월>의 주인공 김태진의 모습이고 ②는 실사체 출판만화 <배가본드>의 주인공 무사시의 모습이다. ①과 ②의 실사체의 표현 방법을 비교하면 ①은 이목구비가 간략하게 묘사 되어 있고 눈과 코, 인체의 일부에 물감의 번짐 효과를 통해 명암 처리가 되어 있다. ②는 이목구비의 묘사에 세밀한 선들이 많이 사용되었고 명암 처리는 펜선과 톤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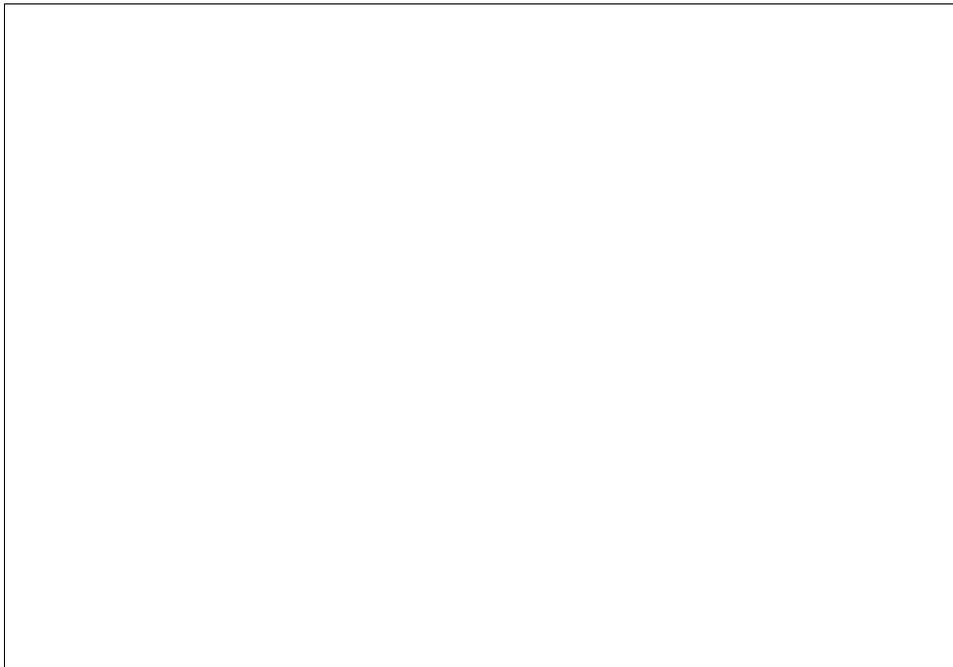
<망월>에서 인물의 표현은 많은 묘사를 가미하지 않고 효율적인 선을 사용하여 등장인물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였다.



<그림 1> ①<망월>과 ②<배가본드>의 인물

(2) 배경

출판만화에서 배경에 자주 사용하는 스크린톤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물감의 번짐 효과를 통해 건물의 바탕을 주로 표현하였다. 또한, 배경그림이 없는 인물의 배경에는 전체적으로 물감의 번짐 효과를 활용하였다. 물감의 번짐 효과를 통해 그라데이션 효과와 명암을 연출 하고 있다 <그림 2>의 ①은 <망월>에서 건물 배경의 이미지로 건물 안쪽에 번짐 효과를 사용하여 명암을 표현하고 있으며 하늘에는 번짐 효과로 구름을 표현하고 있다. ②는 인물 배경으로 번짐 효과를 사용하여 인물의 감정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물감의 번짐 효과를 배경에 사용함으로써 만화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은은하고 서정적으로 보인다.



<그림 2> <망월> ①건물배경과 ②인물배경

3)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을 통해 5·18민주화 운동이라는 소재가 <망월>의 서사구조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망월>의 스토리텔링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다. 첫 번째는 아들 김태진이 현재에서 아버지 김세환의 과거를 파헤치는 내용이며, 두 번째는 아버지 김세환이 과거에서 5·18민주화 운동을 겪는 내용이다. 스토리의 전개 방식은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진행된다. 현재의 김태진과 아버지 김세환의 과거 모습을 교차해서 보여줌으로써 현재와 과거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발단은 상권 1p부터 137p까지로 김세환이 5·18민주화 운동 당시 보안사 작전 담당관이었던 엄기웅을 총으로 죽이면서 시작된다. 발단에서는 김태진과 김세환의 관계가 적대적임을 보여주고 여러 사건을 통해 주인공 김태진의 성격이 표현된다. 아버지의 살인으로 인해 파혼을 당하고 검사 임용이 취소된 김태진 앞에 한승미가 나타나 아버지의 살인이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아버지의 과거를 찾아 5·18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광주로 떠나면서 사건이 시작된다. 발단에서는 5·18민주화 운동이 계기가 되며 등장인물과의 연관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주인공 김태진이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 부정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개는 상권 138p부터 하권 251p까지로 김태진이 광주에 도착하여 김세환과 5·18민주화 운동의 관련성을 찾아다니는 내용과 5·18민주화 운동을 겪는 김세환의 과거 내용이 전개된다. 전개에서는 김태진이 5·18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인물들을 만나게 되면서 관련 인물들이 생각하는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을 보여준다. 과거의 김세환을 통해 5·18민주화 운동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독자에게 5·18민주화 운동 당시의 현실감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전개를 통해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 부정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던 김태진의 생각이 변화하면서 5·18민주화 운동 암매장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방해하는 고종사와 대립하고 5·18민주화 운동의 유가족 한승미, 윤태구와 협력한다.

위기는 하권 251p부터 303p까지로 김태진이 5·18민주화 운동 당시 암매장 사건의 진실을 듣기 위해 위기에 처하는 내용과 과거의 김세환이 시민군의 스파이가 되어 위기에 처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위기에서는 5·18민주화 운동을 방해하는 과거와 현재 세력의 모습과 진실을 밝히려는 관련 인물의 노력을 보여준다. 주인공 김태진의 변화된 모습과 과거 비겁했던 김세환의 모습을 위기 상황에서 보여줌으로써 두 사람의 선택이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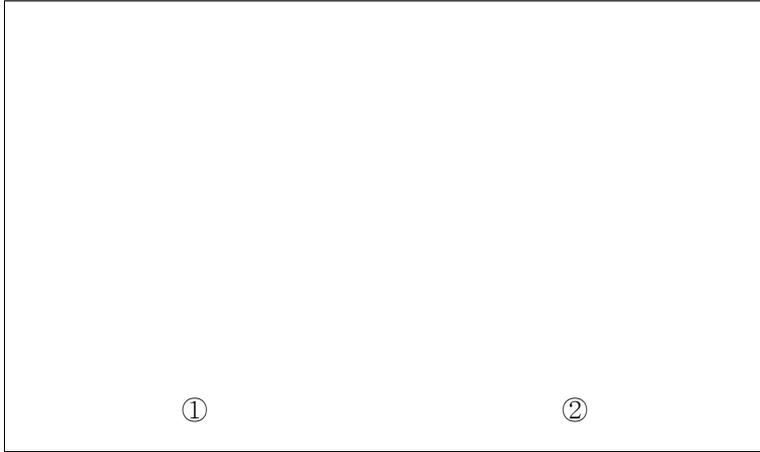
절정은 하권 304p부터 371p까지로 김태진이 고중사의 방해를 물리치고 진실을 듣기 위해 위독한 김세환을 만나는 내용이다. 5·18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광주를 벗어나려는 시민군이 김세환에 의해 함정에 빠져 죽는 내용을 통해 절정으로 치닫는다. 절정에서는 5·18민주화 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의 잔인한 모습과 피해자의 슬픈 현실을 보여준다. 김태진과 김세환은 절정에서 서로의 인생에 대한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절정을 통해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결말은 하권 372p부터 397p까지로 김세환의 죽음을 통해 남겨진 인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결말에서는 방해자였던 고중사의 불행한 모습과 사건의 핵심이었던 5·18민주화 운동의 암매장 사건의 진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5·18민주화 운동의 암매장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과 죽기 전 엄기웅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사건이 끝나지 않음을 암시함으로써 현재의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김태진과 한승미, 윤태구가 5·18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밝히려는 모습을 통해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준다.

4) 연출

(1) 연출 특징

<망월>의 연출에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 번째 특징은 독백 연출이다. 독백을 표현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칸을 나눠 독백을 연출하는 방식이 아닌 이미지와 독백을 한 칸에서 사용하여 연출하고 있다. 한 칸에서 이미지와 독백이 사용됨으로써 이미지와 독백이 겹쳐져 가독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한 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체감이 형성된다. 그로 인해 독백을 하는 인물의 감정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그림 3>의 ①은 과거의 김세환이 독백을 표현한 장면으로 대사와 이미지가 한 칸에 담겨 있다. 김세환이 정부의 스파이가 되면서 느끼는 감정이 이미지와 대사에 일체감 있게 표현되고 있다. ②에서 김태진은 아버지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 광주로 가는 기차에서 하는 독백이다. 독백이 배경의 이미지와 겹쳐져 있지만 김태진이 광주로 가게 되면서 느끼는 불안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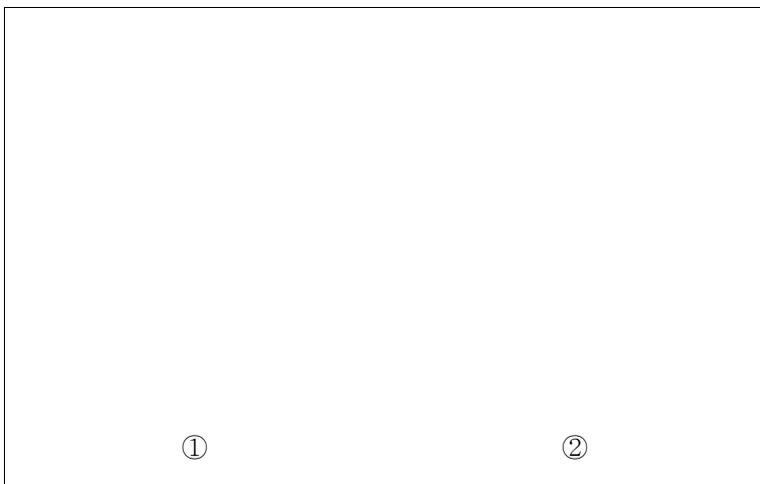


표현하고 있다.

<그림 3> <망월>의 독백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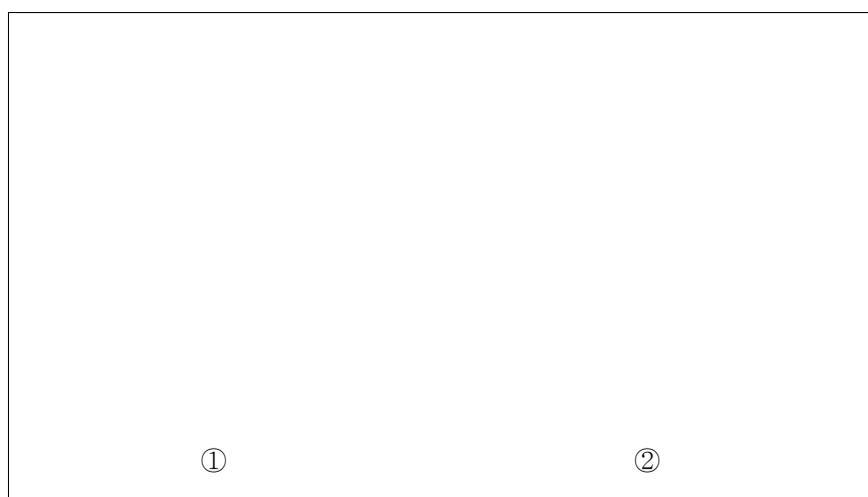
두 번째 특징은 장면이 전환되는 연출이다. 스토리의 진행이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장면이 교차되면서 전환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타난다. 전환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대사를 활용하거나 과거와 현재에 동시에 등장하는 인물인 김세환과 오중사를 통해 교차된 장면이 연출된다.

<그림 4>의 ①은 현재의 오중사 대사와 과거 엄기웅의 대사가 연결되면서 현재에서 과거로 시대가 전환되는 장면이다. 현재의 오중사가 자신에게 협박을 하는 검사의 말을 듣고 과거의 엄기웅이 자신에게 말을 하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시대가 전환되고 과거와 현재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②는 현재의 김세환과 과거의 김세환이 교차되어 보이면서 장면이 전환된다. 살인으로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는 현재의 김세환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매개로 하여 과거의 김세환의 모습으로 변화한다. 동일한 인물이 교차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대가 전환되고 있다.



<그림 4> <망월>의 장면이 전환 되는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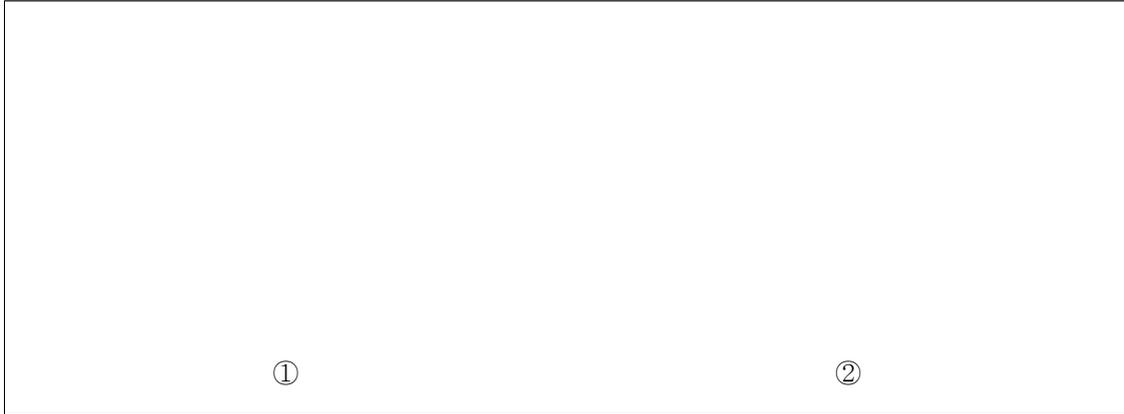
세 번째 특징은 액션 장면의 효과선 연출이다. 액션 장면에서 배경 전체에 효과선 만을 사용한 연출이 자주 사용되었다. 배경 전체에 효과선 만을 사용함으로써 장면의 긴박감과 속도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5>의 ①은 함정에 빠진 황철배와 윤시은이 도망을 치기 위해 달리는 장면으로 배경 전체에 효과 선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배경 전체에 효과선을 사용함으로써 긴장감과 속도감이 연출되고 있다. ②는 고중사와 윤태구의 격투 장면으로 서로에게 주먹을 날리고 맞는 배경 장면 전체에 효과선을 사용함으로써 격투의 타격감과 속도감이 연출되고 있다.



<그림 5> <망월>의 액션 장면 효과선 연출

(2) 역사적 장면 연출

역사적 장면 연출에는 두 가지의 특징 나타난다. 첫 번째 특징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연출 표현이다. 5·18민주화 운동 당시에 상황을 표현함에 있어서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실이 많았기 때문에 연출자에 따라서 수위 조절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망월>에서는 구타를 당하거나 총에 맞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5·18민주화 운동을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연출을 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역사적 사실을 차별화한 연출 표현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은 칸 밖에 검은 테두리를 사용하여 일반 내용과 차별화하여 연출하였다. <그림 6>의 ①은 5·18민주화 운동 당시 군인이 시민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으로 곤봉에 머리를 맞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5·18민주화 운동 당시 잔인했던 장면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②는 김재규에게 박정희가 총을 맞는 역사적 사실을 연출한 장면으로 칸 밖에 검은색 테두리를 통해 일반적인 장면과 차별화하여 연출하였다.



<그림 6> <망월>의 역사적 장면연출

2. 웹툰 <열두 살 삼촌>

1) 작품 소개

(1) 제작 취지 및 작가 소개

<열두 살 삼촌>은 5·18기념재단에서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2013년 7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연재된 웹툰이다. 인터넷에서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이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젊은 세대들이 관심 갖고 즐겨보는 웹툰을 제작·연재하여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매주 목요일에 연재된 <열두 살 삼촌>은 2011년 5·18문학상 동화 당선작인 황규섭의 원작을 바탕으로 전문작가들로 구성된 ‘붓(Bood)’이 각색하여 완성하였다.

붓(Bood)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거친 전문작가들로 구성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에서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2012년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2) 줄거리

<열두 살 삼촌>은 열두 살 민국이가 자전거를 찾기 위해 각 화마다 추리를 해나가는 내용이다. 경찰관이 꿈인 12살 민국이가 새로 산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12살 민국이에게는 1980년 5·18민주화 운동 당시에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한쪽 다리를 잃고 자폐 증세까지 앓게 된 삼촌이 있다. 민국이는 자전거를 찾는 도중 고물상 노인을 의심하면서 노인 주변을 조사하게 된다. 그러던 중 아버지에게 5·18민주화 운동 당시 상황과 삼촌의 얘기를 듣게 된다. 자전거 도둑으로

의심되던 노인은 5·18민주화 운동 당시의 피해자이고 모든 정황이 오해였음이 밝혀진다. 그리고 진짜 자전거 도둑은 과거의 자전거를 찾고 있던 삼촌이었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3) 등장인물

<열두 살 삼촌>의 주요 등장인물은 한민국, 한정석(아버지), 한정옥(삼촌), 고물상 노인이다. 각 인물들에 대한 성격 및 역할은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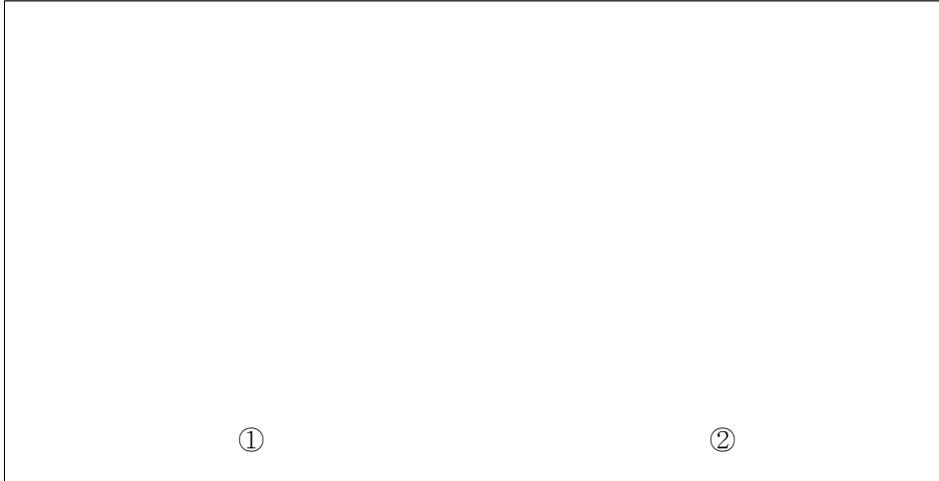
등장인물	
한민국	12살의 아이로 수사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며 정의감이 있고 도덕심이 투철하다.
한정석(아버지)	민국의 아버지로 경찰관이며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 민국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5·18민주화 운동 당시 삼촌이 다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애항심이 강하다.
한정옥(삼촌)	민국의 삼촌으로 5·18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한쪽 다리를 잃고 자폐증을 앓고 있다. 정신연령이 12살에 머물러 있으며 민국이 부모님의 싸움 원인이 되곤 한다.
고물상 노인	5·18민주화 운동 당시 아들이 죽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 고물을 주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 민국의 자전거를 훔쳐간 유력 용의자이다.

<표 2> <열두 살 삼촌>의 등장인물

2) 그림

(1)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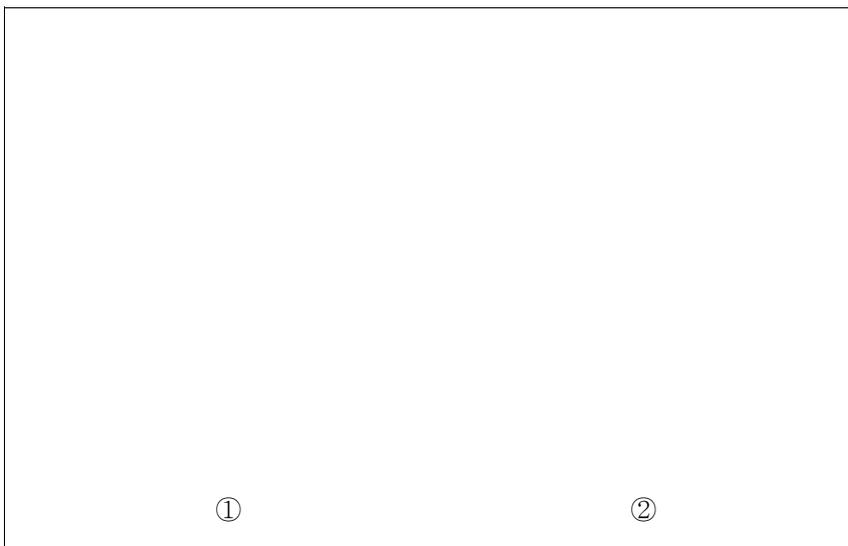
그림체는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과장된 표현이 많은 만화체로 색상과 그림의 형태가 학습만화와 유사하다. 인물의 묘사는 과장된 표현이 많고 펜선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단순화된 선이 많다. 또한, 감정에 따른 표정의 변화가 크고 우스꽝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그림 7>의 ①은 <열두 살 삼촌>의 주인공 민국이 울고 있는 이미지로 입의 크기가 실제 사람의 모습보다 크게 표현되어 있고 묘사가 단순하며 색상의 채도가 높다. ②는 인기 학습만화인 <인체에서 살아남기>의 주인공 이미지로 인물의 눈과 입이 실제 사람보다 크게 표현되어 있고 묘사가 단순하면서 과장되어 있다. 색상은 채도가 높은 계열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림 7> <열두 살 삼촌>과 <인체에서 살아남기>의 인물

(2) 배경

<열두 살 삼촌>의 배경은 채도와 명도가 높은 계열의 색상이 자주 사용되며, 색상의 차이를 통해 배경의 명암이 표현된다. 배경그림이 없는 인물의 뒤 배경에는 색을 통해 배경을 채우고 있다. <그림 8>의 ①은 건물배경으로 베이커리와 철공소를 표현하고 있다. 건물의 전체적인 색상은 파란색, 주황색, 갈색, 녹색 계열의 채도와 명도가 높은 색이 주로 사용되었고 색의 차이를 통해 건물 안쪽의 명암이 표현되었다. 채도가 높은 색을 사용함으로써 배경의 전체적으로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②는 배경그림이 없는 인물 배경으로 노란색 계열의 두 색을 사용하여 배경을 채우고 있다. 인물 배경의 두에 색을 채우는 것으로써 인물의 감정 상태를 색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그림 8> <열두 살 삼촌>의 ①건물배경과 ②인물배경

3)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을 통해 5·18민주화 운동이라는 소재가 <열두 살 삼촌>의 서사구조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열두 살 삼촌>의 스토리텔링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다. 첫 번째는 민국이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삼촌과 아버지가 과거 5·18민주화 운동을 겪게 된 내용이다. 두 스토리는 크게 연결되는 부분이 없이 진행되지만 자전거라는 매개체를 통해 연결된다.

발단은 1화부터 2화까지로 민국의 자전거가 도난당하면서 스토리가 진행된다. 주인공 민국의 성격과 주변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타난다. 발단에서는 주인공 민국이 수사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잃어버린 자전거를 스스로 찾으려 한다. 민국의 아빠와 삼촌을 독자들에게 인지도시킴으로써 5·18민주화 운동 이야기의 연결되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전개는 3화부터 11화까지로 주인공 민국이 도난당한 자전거의 중요 용의자인 고물상 노인을 조사하는 내용과 삼촌 때문에 민국의 부모님이 싸우는 내용이 전개된다. 민국은 엄마에게 5·18민주화 운동 당시의 아빠의 모습에 대해 듣는다. 전개에서는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보다는 자전거를 찾는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은 엄마 가게를 찾은 민국이 5·18민주화 운동 당시 사진을 보고 민국의 생각이 표현된다. 아쉬운 점은 자전거를 찾는 중심 사건과 5·18민주화 운동과의 연결되는 부분이 미흡하다. 삼촌으로 인해 싸우는 부모님의 모습 때문에 삼촌을 미워하는 민국이 감정이 나타난다.

위기는 12화부터 20화까지로 민국은 고물상 노인이 자전거 도둑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인의 컨테이너에 잠입하지만 철공소 주인에게 붙잡혀 위기에 빠진다. 아빠에게 과거 5·18민주화 운동 당시의 얘기를 듣게 된 민국은 삼촌이 다친 이유에 대해 알게 된다. 위기에서는 민국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내용과 5·18민주화 운동 당시에 삼촌과 광주 시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5·18민주화 운동과 자전거 사건의 연결점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삼촌이 5·18민주화 운동 당시 12살에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는 내용을 통해 연결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5·18민주화 운동을 통해 다친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민국이 삼촌에 대한 감정이 변화한다.

절정은 21화로 컨테이너에 잠입했던 민국이 자전거 사건의 유력용의자인 고물상 노인과 대질하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결정적인 상황에 놓인다. 민국과 철공소 주인이 경찰에게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닫는다. 민국이 생각한 결정적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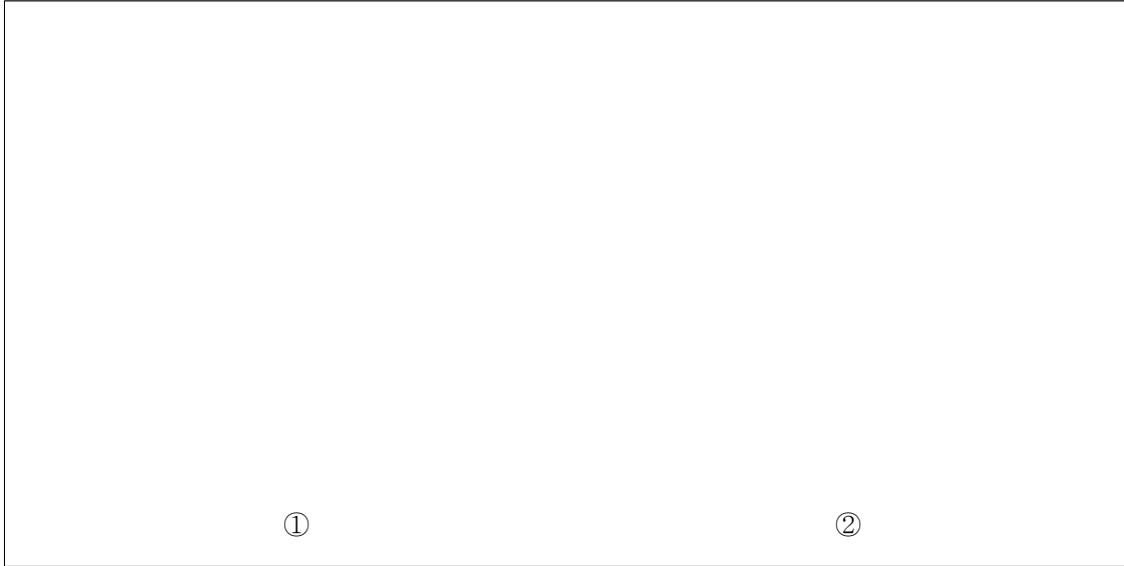
거인 난수표가 경찰에게 공개되면서 난수표의 사실 여부가 중요해진다. 아쉬운 점은 스토리에서 결정적 증거인 난수표가 자전거 도둑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는 점에서 초반에 진행되었던 자전거 도둑을 찾는 내용과 어긋난다.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은 삼촌과 아빠가 참가하였던 5·18민주화 운동 행사에 관련된 내용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사건과 5·18민주화 운동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다.

결말은 22화부터 24화까지로 자전거 도난사건이 해결되고 진짜 범인이 삼촌이었음을 인지하지만 삼촌의 과거를 알게 된 민국이 삼촌을 이해하면서 끝을 맺는다. 결정적 증거인 난수표가 금전출납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전거 도난사건이 민국의 착각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진다. 민국은 노인의 선처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민국은 잃어버렸던 자전거를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발견하게 된다. 밤에 민국은 삼촌이 몰래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것을 보게 되지만 삼촌의 과거를 알게 된 민국은 삼촌을 이해하게 된다. 결말에서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지기보다는 5·18민주화 운동의 피해자인 삼촌을 이해하는 단순한 내용에 그치고 있다.

4) 연출

(1) 연출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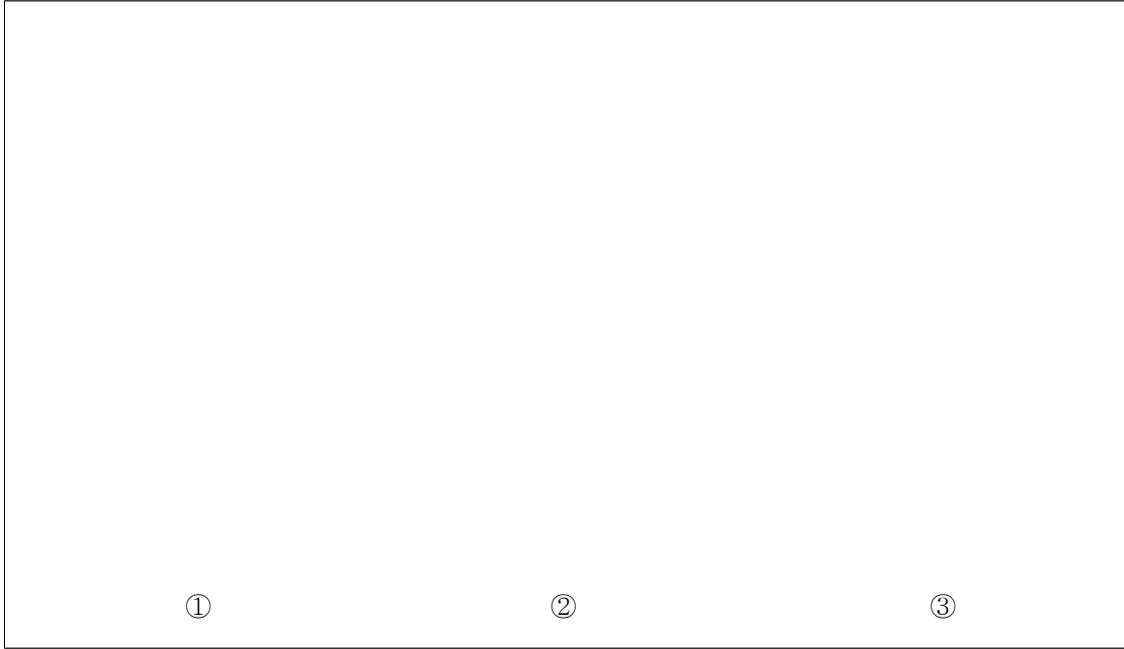
<열두 살 삼촌>의 연출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 번째 특징은 민국의 수첩을 통한 장면 연출이다. 수첩에서 자전거 도난사건 진행 단계에 대한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민국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수첩은 독자들이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특징은 그림 칸을 벗어난 말풍선 연출이다. 일반적으로 그림 안에 말풍선을 두고 표현하는 방식이 아닌 말풍선을 그림 칸에서 벗어난 연출을 자주 사용하였다. 칸을 벗어난 말풍선은 그림과 교차하면서 내용을 진행한다. 말풍선이 칸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다. <그림 9>의 ①은 민국의 수첩으로 총 6회에서 11번 등장한다. 2회에서 4번, 4회에서 2번, 7화와 8회에서 1번, 9회에서 2번, 18회에서 1번이다. 수첩에 작성된 내용을 통해서 민국의 정리된 생각을 알 수 있다. ②는 그림 칸을 벗어난 말풍선 연출로 근회와 통화를 하는 민국과 철공소 주인과 대화를 하는 민국의 모습으로 그림과 벗어난 말풍선이 교차되면서 내용이 전개됨을 알 수 있다.



<그림 9> <열두 살 삼촌>의 연출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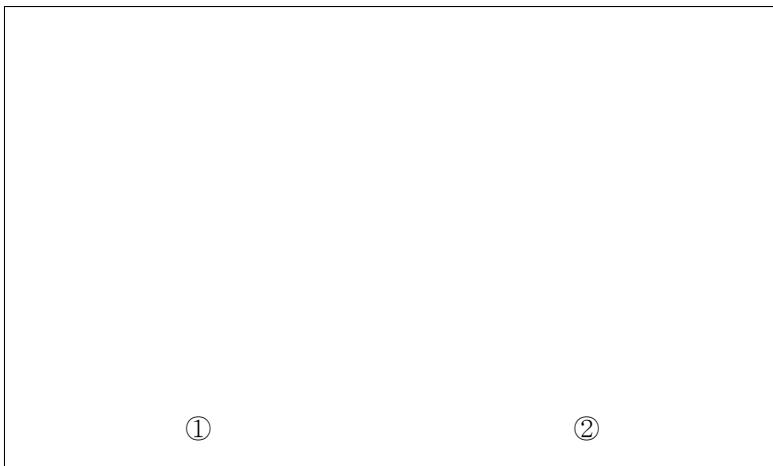
(2) 연출의 문제점

<열두 살 삼촌>의 연출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보이고 있다. 첫 번째는 대사의 문제점으로 대사에서 비속어, 반말, 과거 유행어가 사용된다는 점이다. 민국은 친구와 대화에서 비속어 표현을 사용하며 삼촌에게는 반말을 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비속어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삼촌에게 반말을 하는 모습은 교육적 측면에서 좋지 못한 표현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과거의 유행어를 사용하여 대사의 표현이 다소 유치해보이거나 의미전달이 명확하지 않다. <그림 10>의 ①은 민국과 친구들이 비속어를 사용하는 내용으로 “오 췌”, “영감탱이”, “한판 뜰까”가 있다. ②는 민국이 자폐증이 있는 삼촌에게 반말을 하는 내용으로 “삼촌어디 갔다 왔어?”, “삼촌 뭐 좀 먹었어?”, “배 안고파?”, “밥 차려 줄까?”와 같은 반말로 대화가 진행된다. ③은 과거 유행어가 사용된 내용으로 “니 팔뚝 굵다”, “쌈싸먹으려고”, “슈퍼 울트라 걸” 이 있다.



<그림 10> <열두 살 삼촌>의 대사 연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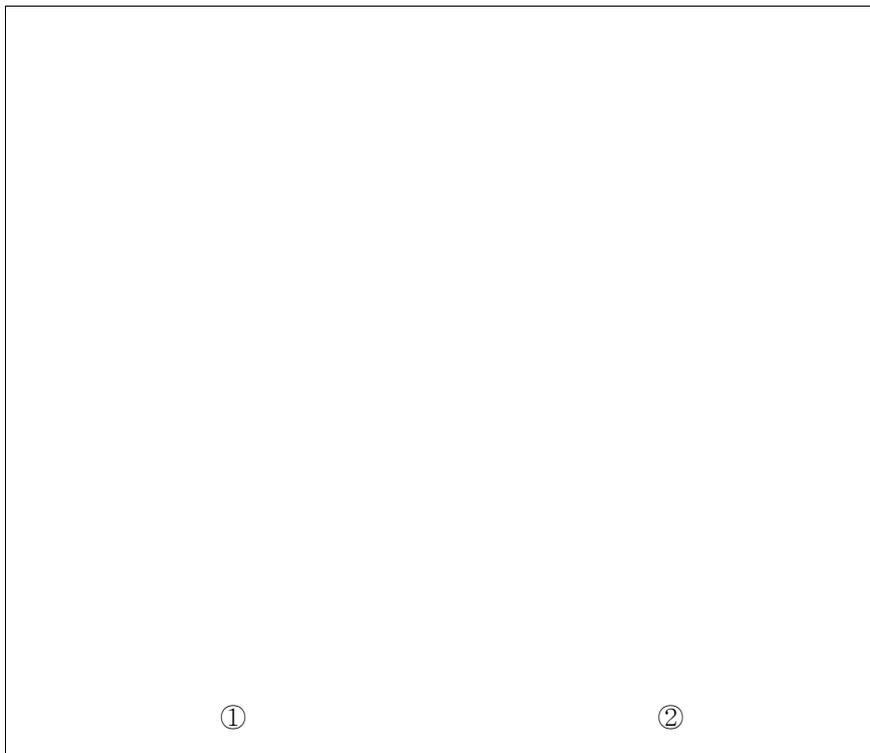
두 번째 문제점은 장면 연출에서 인물의 윗부분 얼굴을 자른 연출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이다. 칸을 분할하는데 있어서 얼굴의 윗부분을 자른 연출은 얼굴의 일부가 절단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감정을 숨기려는 의도적인 장면을 제외하고는 지양해야 한다. <그림 11>의 ①은 민국의 아빠와 엄마가 삼촌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이다. 표정을 통해 감정적 표현을 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의 윗부분을 자른 연출로 인해 표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의 위 칸은 민국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며, 아래 칸은 민국에게 다가오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절단되어 있다. 아버지 역시 얼굴 윗부분을 절단하지 않고 온화한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얼굴이 잘려서 표정을 볼 수 없다.



<그림 11> <열두 살 삼촌>의 장면 연출 문제점

(3) 역사적 장면 연출

역사적 장면은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3화, 8화, 15화에서 연출되었다. 역사적 장면 연출의 특징에는 두 가지가 나타난다. 첫 번째 특징은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연출 표현이다.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미지 표현을 간략하고 단순하게 연출하여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 연출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 표현도 피와 구타장면을 제외한 간접적 연출을 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사진을 통한 5·18민주화 운동 연출이다. 민국의 가게에 있는 사진을 실제 5·18민주화 운동 당시의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5·18민주화 운동의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12>의 ①은 5·18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이 총에 맞고 구타를 당하는 모습으로 총에 맞은 시민들의 피가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직접적이지 않거나 상세한 묘사를 피하여 잔인하고 폭력적인 연출을 제한하고 있다. ②는 8화에서 가게에 걸려 있는 5·18민주화 운동 당시의 실제 사진이다. 군인에게 구타를 당하기 직전의 시민과 군인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5·18민주화 운동의 끔찍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3. 만화 <망월>과 웹툰 <열두 살 삼촌>의 총평

1) 그림

<망월>의 그림체가 실사체에 가까운 방식이라면, <열두 살 삼촌>은 만화체에 가까운 학습만화와 유사한 그림체이다. 그림체를 표현하는 방식은 작가들의 고유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림체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하지만 독자층에 따라 선호하는 그림체가 다르다. <망월>처럼 실사체에 가깝고 분위기를 잘 표현하는 그림체는 어린 독자층보다는 중학생 이상의 독자들이 선호한다. <열두 살 삼촌>처럼 만화체에 채도가 높은 색상을 사용하는 그림은 명확한 것을 선호하는 초등학교 이하의 독자들에게 적합하다. 5·18민주화 운동이라는 소재를 모든 연령층에게 소개하는 그림체를 추구하기 보다는 각 독자층에 맞는 적절한 그림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여 진다.

2) 스토리텔링

<망월>과 <열두 살 삼촌>의 5·18민주화 운동 스토리텔링은 두 가지 이야기의 관점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인다. <망월>과 <열두 살 삼촌>은 현재와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과거의 모습은 동일한 5·18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망월>과 <열두 살 삼촌>의 스토리텔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망월>이 5·18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열두 살 삼촌>은 5·18민주화 운동의 피해자인 삼촌의 모습에 머문 채 스토리가 진행된다. 따라서 <망월>에서 5·18민주화 운동이 내용의 핵심적인 사건으로써 작용을 한다면 <열두 살 삼촌>에서는 중심적인 내용과 연결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거의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망월>의 과거와 현재는 연관성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연결되어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 완결이 되지만 <열두 살 삼촌>은 과거와 현재의 연관성이 부족하여 5·18민주화 운동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지 못한 채 5·18민주화 운동의 피해 사실의 현상만 보여준 채 완결된다. 5·18민주화 운동이라는 소재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5·18민주화 운동이 핵심적인 사건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내용의 재미와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효과적 으로 보여 진다.

3) 연출

<망월>과 <열두 살 삼촌>의 연출방식은 출판만화와 웹툰이라는 출력물로서의 차이가 있다. 출력물의 차이로 인해 두 작품의 연출 특징의 차이가 나타난다. <망월>이 대사적 특징에서 독백을 한칸에 사용하여 감정 표현을 극대화하였다면 <열두 살 삼촌>은 칸의 제한이 없는 점을 활용하여 칸 밖에 말풍선을 자유로운 형태로 표현하였다. <망월>이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되는 장면을 동일한 대사와 인물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끔 연출하였다면, <열두 살 삼촌>은 수첩을 활용하여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연출을 사용하였다.

역사적 장면 연출에서는 <망월>이 폭력적이고 잔인했던 역사적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면, <열두 살 삼촌>에서는 간단하고 단순하게 보여줌으로써 역사적 내용 장면을 최소화하고 있다. <망월>은 미스터리하고 차별적인 연출을 통해 폭력적이며 수위가 높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중학생 이상의 연령에게 적합한 연출로 보인다. <열두 살 삼촌>은 단순하면서도 설명적이고 절제된 폭력적 연출이기 때문에 이해와 폭력적 수위가 낮아야 하는 초등학생 이하의 독자에게 적합해 보이지만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연출이 부족하여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리고 <열두 살 삼촌>에서 지적한 연출의 문제점은 초등학생 이하의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